

청년생활

2

1962

모두다 6개고지 점령에로!

—전국 미술 써클 전람회 당선 작품들—







① 《강철 증산 전선은 1
고지 전투와 같습니
황해 제철소 리 재윤 그

② 《파린산 비료 쏟아진
흥남 비료 공장 미술 써
집체작

③ 《청년 돌격대원들》
평양 도자기 공장
김 동옥 그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차 례



2
(150)
1962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전화 (2—38—58, 2—83—85)
1962년 2월 15일 인쇄 1962년 2월 20일 발행
《값 30 전》 7—230083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 침략자들을 격멸한 영웅의 고지 1,211 고지, 오늘도 하늘 높이 솟아 있는 1,211 고지는 말한다. 《만약 미제 승냥이 무리들이 또다시 달려 든다면 한놈도 살아 남지 못하리라!》

1,211 고지!

일찌기 지도에서 이 고지의 이름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영웅의 고지로, 조선 인민의 불굴의 상징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바로 이 고지에서 《산악 장군》 릿치웨이의 《하기 공세》와 《추기 공세》가 분쇄됐으며 치욕스러운 300 년의 침략사에서 《상승》을 호언하던 미제의 고용병들이 무리 주검을 당했다.

바로 이 고지에서 우리 당의 충직한 전사들이 한 치도 물러 서지 말라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싸워 이겼으며 굽힐 줄 모르는 조선의 기개를 떨쳤다.

1,211 고지는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불굴의 기상을 상징하는 것이며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의탁하고 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그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후세에 전하는 기념비이다.

1,211 고지에서 조선 인민군 장병들이 떨친 애국주의와 무비의 영웅주의에 대한 수 많은 전설들은 천세 만세 사람들의 심장 속에 살아 있을 것이며 꺼질 줄 모르는 불'길처럼 영원히 불타 오를 것이다.

불타는 맹세

전쟁 첫 1년 간에 만도 벌써 59만 8천 여 명의 고용병들을 잃은 미제 침략자들은 1951년의 《하기 공세》에서 또다시 미군 제 2 사단 3만 7천의 보병과 178 련대의 락하산 병들을 몽땅 잃었다. 살인 《장군》들의 심정은 극도로 초조해졌다. 몽상가인 《유엔군 사령관》 릿치웨이에 의하여 《추기 공세》 계획이 작성되였다.

놈들은 이 계획에서 동부 전선의 전략적 요충인 1,211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양구로부터 내금강, 말휘리를 통하여 동해안의 중요 항구 원산과 고성으로 련결된 기동로를 장악한 후 동부와 중부의 아군 부대들을 차단하고 원산, 양덕, 평양을 일선으로 하는 북위 39도 선, 소위 《맥아더 라인》까지 침입하려고 몽상하였다.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놈들은 벌써 이해 8월부터 소위 《미국의 최정예 부대》인 아메리카 제 1 해병 사단을 위시한 15 사단의 병력들과 흑인 부대와 괴뢰군들, 각종 포들과 비행기들을 총 동원하면서 대규모적인 공격을 기도하였다.

전쟁 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기 어려운 《추기 공세》의 첫 막이 올라 갈 바로 1951년 9월 5일, 강건 2 보병 사단에서는 사단 당 열성자 회의가 열렸다. 한 치도 물러 서지 말라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접수하고 로동당원들은 당 중앙 위원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는 데 그 한 구절에는 이렇게 씌여져 있다.

《…우리들은 김 일성 장군의 항일 빨찌산 부대가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극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15 여 성상에 걸친 간고한 무장 투쟁에서 발휘한 무비의 영웅주의와 애국주의와 백절불굴의 혁명적 정신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이 명령한 그대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영예를 위하여 우리의 진지에서 한 걸음도 물러 서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하여 귀중한 우리의 조국 강토를 지키겠다는 것을 맹세하나이다. …》

전투에 진입한지 불과 며칠 어간에 고지의 모습은 완전히 변모되였다. 원쑤들은 《최대의 포격》 《최대의 폭격》을 퍼버리면서 《불바다 전술》을 드리 대였다. 해'빛을 가리우던 울창한 수림들이 뿌리 채 뒤집혀졌고 방금 눈 앞에 있던 바위도 산산 쪼각이 났다. 그리고 나중엔 그 모든 것이 재'가루로 변하여 발목까지 푹푹 빠졌으며 고지의 높이가 낮아지는 형편이였다.

게다가 수십년 래의 대 홍수로 후방로까지 차단되여 식량도 탄약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곤난도 인민군 장병들의 백절불굴의 투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전호 속에서, 교통호에서, 바위 밑에서, 포진지에서 당 회의와 민청 회의들을 열고는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게 맹세문을 드렸고 그 맹세문에 서명하였다. 위급한 전투 시에 사격수는 보총을 쏘며 서명하였고 포수는 포를 쏘면서 서명하였다.

5 중대 세포 위원장은 서명장을 가슴에 품고 비'속을 뚫고 전호마다 달려 다녔다. 귀중한 서명장을 비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세 군데의 전호에서 서명 사업을 끝내고 다음 전호로 달려 가기 시작하였다. 적들의 포탄이 옆에서 진흙을 튕겨 올리면서 작렬하였다. 그만 그는 파편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서명 사업을 일순도 지체할 수 없다는 숭고한 책임감이 그를 앞으로 앞으로 떠 밀었다. 다음 전호의 흉장을 기여 넘는 순간 적의 기총탄이 또다시 그의 흉부를 관통하였다. 그는 전우들에게 안기여 이런 말을 남기고는 자기의 최후를 마쳤다.

《동무들! 나의 품속에 서명장이 있소. 우리의 붉은 맹세를 어서 최고 사령관 동지에게 전하여 주오.》

전우들은 피로써 얼룩진 그 서명장에 서명하면서 복수의 일념에 더욱 불타 올랐다.

탄피에 넣어서 각 전호마다에 돌린 6 중대의 당 회의 결정서 초안에는 이렇게 씌여져 있었다.

《첫째,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일 보도 퇴각 말것! 자기에게 부과된 전투 명령을 무조건 집행할것,

둘째,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싸우라! 탄알을 아끼라!

세째로, <김 일성 장군의 노래>를 소리 높이 부르며 1,211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자!》

우리의 전투원들은 바로 이런 각오로써 싸웠다. 그리고 그 불같은 맹세를 훌륭히 실천하였다. 9월 5일부터 시작된 첫 4일 간의 전투에서만도 적들은 벌써 2,700여명의 주검을 1,211 고지의 깊은 골짜기에 남기고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싸움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다.

《김 일성 장군의 노래》

1,211 고지와 1,052 고지 중간에 위치한 무명 고지에서는 련일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원쑤들은 이 무명 고지를 발판으로 하여 1,211 고지를 탈취해 보려고 발광하였다.

상자 채로 무져 놓고 쓰던 탄약이 거이 떨어져 가던 저녁 무렵에 적들은 또 1 개 중대의 력량으로 공격을 시도하였다. 고지 밑에서는 적들이 불개미떼처럼 우글거렸다. 이 때 전호 마다에 이런 전달이 퍼져 나갔다.

《옆으로 전달, 공개 당 총회가 있음, 소대 음폐부에 모일것.》

당원들과 민청원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음폐호에 모여 들었다. 구석진 곳에서 일어 난 세포 위원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전우들을 둘러 보며 말했다.

《동무들… 수령께서는 군단장 동지에게 친히 전화로 전선 형편을 물으시고 1,211 고지 전사들의 공훈을 높이 찬양하시였습니다. 수령께서는 1,211 고지를 한 치도 내 주지 말라고 하시였습니다.

동지들! 수령은 싸우는 1,211 고지의 전사들을 굳게 믿고 계십니다…》

전사들의 가슴마다에 감격의 선풍이 소용돌이쳤다. 김 일성 장군! 그이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이께서는 바로 이 시각에도 우리들의 싸우는 모습을 굽어 보고 계시다.

전사들의 눈에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끝까지 충실하리라는 장엄한 결의의 불꽃들이 반짝거렸다.

…싸움은 더욱 처절하였다. 인제는 얼마 안되는 탄알마저도 떨어 졌었다. 고지에서는 벌써 총'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몇개의 수류탄 밖에 없었다. 적들은 아득바득

첩근해 왔다. 전사들은 차라리 한 줌 흙으로 변할 지언정 끝까지 고지를 지키겠다는 최후의 각오를 엄숙히 다졌다.

이 때 당원 리 관히 동무가 노래의 선창을 떼였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구비구비 피어린 자욱
……

노래'소리는 힘차게 메아리쳐 나갔다.

자기들에게 행복과 삶의 보람을 안겨준 수령의 노래는 그들에게 있어서 백전백승하는 고무의 힘이였으며 승리의 기'발이 되였다.

이 노래'소리에 원쑤들은 질겁하였다. 적들에게 있어서 인민군 전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폭탄 보다도 더 무서웠다.

(어떻게 바위도 타버린 저런 고지에서 태연하게 노래까지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원쑤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놈들은 비슬비슬 뒤'걸음질 치더니 몸을 홱 돌려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만세—》

《만—세—》

우리의 전투원들은 총창을 고누어 들고 도망치는 원쑤들을 추격하였다. 우렁찬 합성은 고지를 진감하고 있었다.

《로 태진 복수포》

포장 로 태진 동무는 중대 민청 부위원장이였다. 그는 중대 내 민청원들을 당과 수령에 충직한 전사들로 교양하기 위하여 항상 애를 썼다. 침착하고 겸손하면서도 매우 정열적인 그는 언제나 전우들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다. 용감하고 소박한 그의 품성에 대하여 조준수 리 병칠 동무는 자기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포장 동무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어느 날 깊은 밤 나는 우리들의 천막 우에 풀을 베여 덧깔아 비를 막아 주며 잠자는 전우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빙긋이 웃고 있는 포장을 보았다…》

…바람이 몹씨 불고 찬비 나리는 캄캄한 밤, 중대는 매봉에서 1,211 고지로 나갔다. 날이 밝자 적들은 또다시 《파상식 공격》을 들이 대였다. 두 개 대대도 넘는 적들은 집요하게 최소 사격 거리 이내에 기여 들었다. 놈들은 자기들의 주검을 넘어 서며 포진지에로 기여 들었다. 거리는 70 메터… 이 때 포 사격을 지휘하던 로 태진 동무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심이 어렸다. 그는 자기 포에로 달려 갔다. 그리고는 포신을 끌어 안고 그것을 곧추 세웠다. 포수들은 사랑하는 포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황황 시퍼런 불이 일고 있었다. 그는 동무들에게 명령하였다.

《자, 어서 장탄하시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령거리 사격이란 아직도 그 어느 전쟁 력사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편차가 생겨 보라! 그러면 하늘로 곧추 올라갔던 포탄이 어찌 포수들의 머리 우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비장하고도 대담한 행동인 것이다.



위력한 박격포탄은 련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는 원쑤들의 복판에서 터졌다. 적들이 접근할 수록 포신은 더욱 곧추 일어섰다. 그야말로 정수직이였다.

포신은 달대로 달았다. 포신을 끌어 안은 손과 가슴이 데고 타들어 가나 태진이는 불사신처럼 포를 굳게 끌어 안고 웨쳤다.

《빨리빨리 장탄하오. 실컷 놈들을 족쳐 봅시다.》

이 날 로 태진 동무는 45 메터의 근거리에 무려 70 여 발의 명중탄을 퍼부어 원쑤들을 무리로 쓸어 눕혔다.

싸움이 류달리 격렬하던 10월 8일, 적의 포탄 한 발이 그의 옆에서 터졌다. 전우들은 포를 지휘하고 있던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가느러짐을 느꼈다. 용감한 전사는 땅 우에 쓰러져 있었다. 적의 포탄 파편이 그의 오른 쪽 옆구리로부터 왼쪽 옆구리로 꿰뚫고 나갔던 것이다. 전우들은 내의들을 찢어서 그의 상처에 응급 처치를하였다.

얼마 후 그는 눈을 떴다. 갑자기 최후를 앞둔 그의 눈 앞에 각가지 회상들이 떠 올랐다.

…가난한 소작인의 아들로 자라던 구슬픈 세월, 비'바람 조차 막을 수 없던 한산한 오막살이며 피땀으로 지어 놓은 곡식을 실어 가는 지주 놈의 무정한 달구지 소리… 맨발로 아버지를 따라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나 이리 저리로 류랑하던 어린 시절의 나날들…

태진은 안'간힘을 써서 몸을 비스듬히 일으키고는 한 손으로 복부를 글어쥐고 다른 손을 내 밀며 포탄을 달라고 하였다. 전우들은 그의 심정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 장탄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전우들은 그의 장탄을 도와 주었다. 태진은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자 빙긋이 웃음까지 띄우더니 모든 기력을 한 곬에 집중하고 《김 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고 용감하게 자기의 최후를 마쳤다.

전투가 끝난 후 포수 최 영봉 동무는 자기의 소박한 필치로 로 태진 포장의 용감한 최후 장면에 대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드렸다.

《…나는 방금 보았습니다. 우리의 포장 로 태진 동무의 영웅적 투쟁을… 로 태진 포장은 고상한 로동당원의 이름을 영예롭게 사수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이시여!

당의 아들이며 당신의 전사이며 우리의 사랑하는 포장인 로 태진 동무의 마지막 인사를 전해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포를 〈로 태진 복수포〉라고 부르며 원쑤들에게 복수탄을 퍼부어 적을 모조리 잡아 치우고 있습니다…》

《로 태진 복수포》는 1,211 고지 전투에서만도 적병 1,240 여 명을 소멸하는 혁혁한 위훈을 세웠다.

포연 속에 꽃피는 청춘의 랑만

1,211 고지는 언제나 검은 연기 속에 쌓여 있었다.

1,211 고지의 동남 방향 가칠봉에 도사리고 있던 미군 부대와 괴뢰군 5 사도 전멸되였다. 그러나 놈들은 가장 악질적인 《백골부대》 괴뢰군 3사를 새로 투입하고 미군 돌격대와 포병대를 증강했으며 토이기 군대와 불란서 고용병들도 대거 투입하였다. 《최대의 폭격》과 《최대의 포격》은 련일 계속되였다. 그야말로 고지의 높이가 11 메터나 줄어 들어 1,200 고지로 되였다고들 하였다. 전투는 더욱 격렬해 갔다.

그러나 우리의 전사들은 언제나 사기 충천하였다. 그들은 하루에 수십 차례씩의 전투를 겪으면서도 생활에서는 항상 환희와 랑만이 꽃폈고 마음은 언제나 여유당당하였다.

전투가 끝나면 그들은 전호 속에 모여 앉아 떠들석하며 웃음과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읊었다. 비좁은 엄폐호 안에서 빙빙 어깨 걸고 돌아가면서 춤도 추웠다.

그 사나운 불'길 속에서도 콩나물을 길렀고 야장'간을 설치해 놓고는 파편들을 주어다가 갱도를 팔 곡괭이며 삽들을 벼렸다. 파편들로는 목수용 끌이며 대패들도 만들어 내였다. 그리고는 적기를 추락시켜 얻은 비행기 날개, 가렬한 전투에서 로획한 적들의 통신선, 불타다 남은 박달나무와 오동나무들을 얻어다 북과 꽹가리, 젓대와 키타, 만도링 등 다양한 《화선 악기》들을 만들어 내였다. 간혹 전투가 끝난 호젓한 저녁이면 그 《화선 악기》에 마추어 노래하며 춤췄고 원쑤들이 게바라 오를 때에도 놈들을 골려 주기 위하여 일제히 그 화선 악기들을 연주하군 하였다. 그러면 원쑤들은 극도로 당황망조하였고 자기들의 가슴을 말 없이 휘감는 공포와 불안을 털어버리기 위하여 수만발의 포탄을 허비하군 하였다. 그러나 전사들의 《화선 악기》 소리와 노래'소리는 더

욱 높게 더욱 우렁차게 울려퍼지는 것이였다. 웃음과 노래는 전사들의 생활에서 떼여 낼 수 없는 동반자였으며 그들의 사기를 천백배로 고무하는 혁명적인 량식이였다.

가끔 전호 속에서는 격렬한 론쟁과 토론이 벌어지군하였다. 고향을 두고…희망을 두고…

《난 앞으로 시인이 되여 1,211 고지에 대한 서사시를 쓸테야.》

문학을 즐기는 한 전사가 이렇게 말하면 로동자 출신의 전사는 이렇게 받았다.

《그것도 좋지만 난 이 아래다 용광로를 만들어 놓겠어… 이 고지 일대에 파편들이 쭉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농민 출신의 전사는 또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였다.

《난 여기에다 감자들을 심겠어… 이 재'무지에 감자를 심으면 아마 놈들의 폭탄보다 더 큰것들을 파낼 수 있을 거야.》

바로 이렇게 전사들의 심장에는 조국 산천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들이 간직되여 있었다.

어느 한 전호에서는 김 룡수 동무네 분대원들이 고향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분대장 동무 고향이 저 마을이라지요?》

분대원 하나가 김 룡수 분대장에게 바투 다가 앉으며 이렇게 물었다. 룡수의 고향은 바로 눈 앞에 보이는 가칠봉 기슭에 있었다. 룡수는 다감한 심정으로 하늘'가에 불타는 노을을 바라 보며 대답하였다.

《그렇소, 지금 나는 고향의 뒤'산에서 싸우고 있소. 만약 전쟁이 아니였더라면 지금 고향 마을의 사람들은 하루의 들일을 끝내고 아름다운 노을 빛을 함빡 받으며 집으로들 돌아올거요.》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전사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불타 올랐다.

고향! 고향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떠나면 려정에서도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며 세월이 흐를 수록 적은 실개울과 샘터들에 이르기까지 잊혀지지 않고 선명하게 안겨오는 한폭의 그림인 것이다. 그것은 또 사람들의 가슴에서 한 없이 억센 용기와 맑은 감정을 솟게하는 영원한 샘물이기도 하다.

자기들이 나고 자란 고향, 어머니와 아버지, 안해와 자식들, 모든 친근한 사람들이 있는 고향, 아름다운 언덕이 있고 알알이 무르익은 과원이 있는 고향, 그 고향을 한 없이 사랑하는 전사들의 마음은 크나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 잇닿아 있는 것이다.

원쑤들이 또다시 고지에 달라 붙었을때 그들은 분연히 총창을 고누어들고 일어섰었다.

《아름다운 우리 고향을 피로써 지키자!》

《조국 산천을 한치도 원쑤에게 내여주지말자! 당 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숭고한 감정과 드높은 책임성으로 김 룡수 분대원들은 원쑤들에게 무리주검을 주었다. 룡수 동무는 대렬 선두에서 놈들이 던지는 수류탄을 되받아 던지며 우글거리는 적들 속에 뛰여 들어 놈들의 골통을 내려까고 날창으로 가슴팍을 질러 넘겼다. 원쑤놈들은 당황해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어깨 다리》

1,211 고지의 전투 승리를 위하여 철령—말휘리 간의 도로 수리를 책임진 도로 관리 구분대에서 있은 일이다.

초 겨울에 잡아 들면서 어느덧 강에는 살얼음이 비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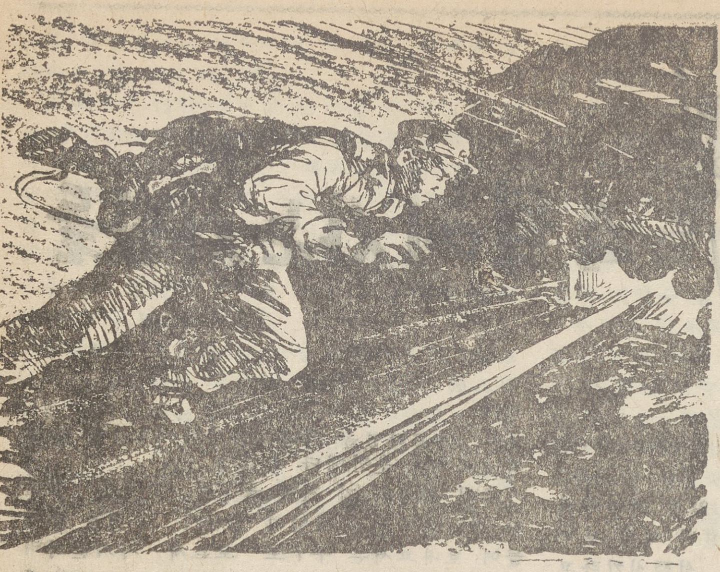
적들의 폭격으로 말휘리 다리는 하루에도 몇차례씩 끊어졌었다. 교량 재료들을 미처 구해 올 수 없는 형편이였다. 그런데 수송은 급했다. 밤이되였다. 이날도 진종일 다리를 복구했으나 아직도 해놓지 못한 구간은 14 메터나 남아 있었다. 초저녁부터 물자를 만재한 100 여대의 자동차들이 강'가에 몰켜서서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재기 전에 어서 저 군수 물자를 건네야 한다. 적들의 항공도 심한데…)

모든 전사들의 심장을 이런 생각이 꽉 지지눌렀다. 이때 대대 민청 위원장이 달려 오고 현장에서의 민청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모두다 물 속에 들어서서 어깨로 다리를 떠받들고 자동차를 통과시키자는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살얼음이낀 차거운 얼음물에 통나무를 떠메고 들어서서 온밤 자기들의 어깨 우로 100 여 대의 자동차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곤난이 아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난관도 전방에 탄알을 빨리 보내려는 전사들의 기개를 꺾을 수는 없었다. 50 여 명의 전투원들이 통나무들을 메고 얼음물 속에 뛰여들었고 그 우에다 널판자들을 깔았다. 차거운 물 속에서 두 다리는 완전히 모지라지는 것만 같았다.

첫 자동차가 그들의 어깨를 누루며 굴러들었다. 《영차, 영차》하는 고함 소리와 《허리를 펴라!》는 웨침 소리가 대기를 찢었다. 자동차는 6 대, 20 대, 련신 구울어 들고 전신의 감각은 마비될 듯 했으며 어깨는 부서지는 듯



하였다. 게다가 한참 후에는 적기들이 날아와서 조명탄을 걸고 폭격까지 시작하였다. 파편은 쌩쌩 귀'부리를 스쳤다. 1초도 지체 없이 자동차들을 통과시켜야 했다.

《어깨가 부서져도 견디여내자!》

《1초라도 더 빨리 전선에 복수탄을 보내자!》

이런 구호들이 련거퍼 터져 올랐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구불어드는 등에 힘을 바싹 넣으면서 장승처럼 버티여섰다.

100여대의 자동차들이 이 강인한 전사들의 어깨우로 다 통과되였을 때에는 기나긴 밤도 거이 동터 올 무렵이였다. 모두들 지칠대로 지쳤으나 멀리 전방으로 사라져 가는 자동차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마다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승리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렇게도 아름답고 숭고한 미소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청춘

사람의 한생이란 무한정 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나름으로 그 한생을 빛나게 보내는 사람도 있으며 덧 없이 흘러 보내는 사람도 있다. 90 평생을 살면서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하면 청춘 시기에 자기의 생애를 마쳤어도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에 홰'불처럼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의 가슴에서 더 없이 친근한 감정으로 불리워 지고 있는 리 수복 영웅의 경우 역시 그렇다.

당시 19 세의 나어린 민청원이던 그는 무명 고지 습격 전투에서 부대의 진격로를 열려고 적의 화점을 향해서 기다가 다리에 적탄을 맞았다. 그러나 그는 기고 또 기였다. 적의 화구 15 메터까지 갔을 때 그는 두 개의 수류탄을 련'이여 던졌다. 그래도 그놈은 아가리를 다물지 않았다. 전사는 심한 출혈로 기진해서 땅우에 쓸어졌다. 1 초, 2 초…시간은 흐른다. 그의 주위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총탄이 튄다. 이때 그의 귀에는 분명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아! 어서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가증스런 적 화구를 까부시라! 너의 뒤에는 1,211 고지가 있고 송계산 기슭의 마을이 있다. 지금은 조국 땅이 너를 보고 있다. 아들아! 어서일어 나거라…

그는 몸을 벌떡 일으키고 적의 화구로 내달았다. 그리고는 《돌격 앞으로!》의 구령 소리도 높이 청춘의 가슴을 기'발인양 활짝 벌려 가증스런 적의 화점을 끌어 안았다.

《…나는 해방된 조선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데 있으랴!》

이것은 영웅이 남긴 수기의 한 구절이다. 영웅 리 수복—그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청춘이며 그가 남긴 이말은 억천 만년 두고두고 전해질 아름다운 노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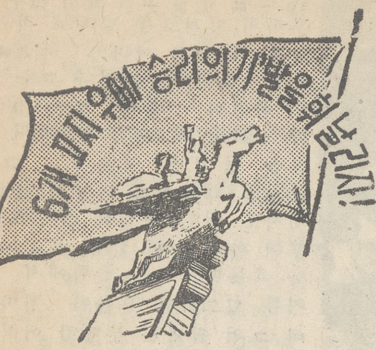
× ×

1,211 고지에 피여난 아름다운 전설은 하늘의 별보다 많다. 실로 이 고지의 방어자들 전부가 영웅이였다.

적들은 1951년 9월 4일부터 11월 초순까지 2개월 여에 걸쳐 발악적인 공격을 감행했으나 이 고지에서 1만 5천 여 명의 유생 력량과 막대한 전투 기재를 손실 당했을 뿐 1보도 전진 못했다. 놈들은 여기에서 어찌나 질겁했던지 1,211고지를 쳐다만 봐도 마음이 상한다고 《상심령》이라하였고 그 앞에 있는 골짜기를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다하여 《함정'골》이라 하였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이 력사에서 심중한 교훈을 찾지 않고 또다시 무모한 불장난을 감행한다면 놈들은 이보다 천백배의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영웅 고지 1,211 고지여! 이나라 슬기로운 아들딸들의 불굴의 기상을 담고 억천 만년 영원히 높이 솟아 있으라!



4월에 사는 사람들

지금은 2월이지만 우리는 4월에 살고 있다. 그 사연은 이러하다!

지난 12월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고 설비 예방 보수와 함께 자재와 예비 부속품을 선행시키라고 교시 하시였다.

우리는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다음 공정들에서 20일 이상의 부속품을 선행시키는 전 직장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바로 우리 공장에서 처음 생산한 9,620 키로 변압기를 생산 보장하는 행정이 그의 실례로 된다.

지난 시기 우리들은 다음 공정에 20일 이상의 부속품도 보장해주지 못했었다. 그래서 공장 동무들은 우리를 보고 저북이 잔등에 풀이 나게 한 사람들이라고 불러 왔다. 그러나 수상 동지의 교시가 있은 후 부터는 우리 제관 직장 동무들은 9,620 키로 변압기 와성 공정에 달라 붙었다.

이 작업의 첫 공정을 담당한 절단 작업반원들은 42 톤에 해당하는 그런 막대한 철재들을 절단, 가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립 현장에까지 운반해다 주었다.

특히 직장장 김 진하 동무와 리 시운 천리마 작업반장들은 작업이 끝나자 우리를 집에 돌여 보내고서는 누구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남아서 어려운 산소 절단 작업을 보장해 내기도 하였다.

리 춘재 동무는 45 공수가 들어야 할 아주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용접을 앓아서 결근한 동무들의 몫까지 담당하여 단 일 주일에 해치웠다. 그리하여 우리는 벌써 4월이나 5월에 소비할 수 있는 부속을 전부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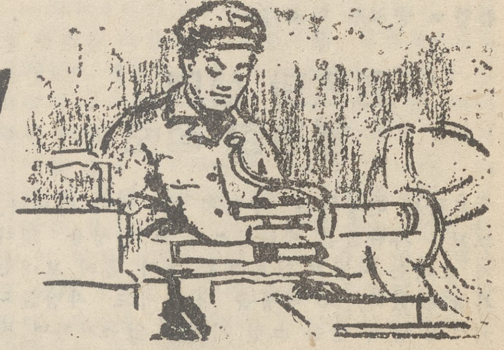
우리들은 6 개 고지 점령을 위한 첫달 계획을 지표별로 150%로 초과 수행 하였다.

사람들이 우리 제관 직장 동무들을 보고 2월이지만 4~5월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여 부속품 선행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

대안 전기 공장 제관 직장

허 헌

1,200% 기계



수상 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한 세찬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우리 대안 전기 공장 발전기 직장에서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의 기계가 돌아 가고 있다. 이 견인 전동기를 로동자들은 《1,200% 기계》라고 부르고 있다.

로동당 시대에는 기계 이름도 달라진다.

지난해 수상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을 현지 지도 하시면서 530 키로 왔트 견인 전동기를 더 많이 만들라고 교시하시였다.

수상 동지의 현지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 들인 기계화 설계 집단과 로동자 동무들은 케스를 종합적으로 가공하는 새 형의 기계를 창안하는 데 달라 붙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우리들에겐 난관도 적지 않았다. 그럴때 마다 수상 동지의 교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였고 집체적으로 토의 하군 했다. 이렇게하여 그 전 같으면 3 개월 이상 걸려야 했을 설계를 단 13일에 완성하고 제작에 착수하였다.

우리는 집체적 지혜를 모아 새 기계를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복잡한 세 공정을 없애고도 2일에 1 대를 생산하게 되였다. 견인 전동기 케스를 종전 방법으로는 120 대를 생산하자면 무려 2,880 일이 걸렸는 데 《1,200% 기계》가 나옴으로써 단 240 일에 생산 할 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100 마력 전동기 약 100 여 대를 더 생산할 수 있는 5,200 여 공수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기술 혁명 시대의 기계화의 초병이 되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상 동지의 교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1,200% 기계》를 창안 함으로써 우리는 붉은기호 전기 기관차 20 대를 현존 설비로 훨씬 기일을 앞당겨 완수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앞으로 작년 실적에 비해 2 배나 더 많은 금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여 1,000 톤 프레스와 8 메터 타닝을 비롯하여 《1,200% 기계》와 같은 69 대의 특수 공작 기계를 어김 없이 생산 보장하고야 말겠다.

통신원 김 천석

들끓는 전야



알곡 500만 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급 비료 생산이 거이 끝나갈 무렵이였습니다. 우리 《리 수복 청년 돌격대》원들은 커다란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우리는 20 여 일 간에 산'더미 같이 거름을 생산해 놓았으나 그것을 이십리가 넘는 논판까지 운반해 가자면 소달구지를 몽땅 동원하고 뜨락또르까지 동원시켜도 우리들이 결정한 날'자까지 도저히 해낼 수 없었습니다. 거름더미 앞에 모여선 돌격대원들은 이 난관을 뚫고 나갈 방도를 토론해 봤으나 이렇다할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중을 갓 나온 김 수익 동무가 좋은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가 거름을 운반할 거리가 8 키로나 된다는 것은 길이 산을 굽이 돌아 갔기 때문이라는 것이 였습니다. 그러니 반대편 산 기슭에 불과 몇 십 메터의 길을 내고 거기에다 밀차를 놓으면 능히 속한 기일에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이 였습니다. 그리고 논판 길은 썰매를 리용하자는 것이 그의 의견이 였습니다.

이 의견을 들은 우리들은 손'벽을 치며 기뻐 하였습니다.

이튿 새벽부터 우리는 산 기슭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혁명 가요를 부르며 작업을 다우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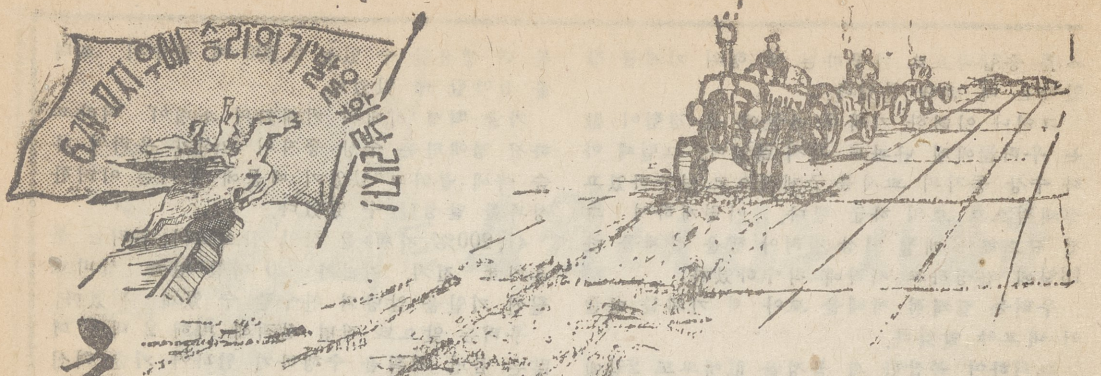
돌격대원들의 기세는 단숨에 태산도 허물어낼 듯 하였습니다. 가정 부인인 최 종순 동무를 비롯한 많은 민청원들도 달려나와 일'손을 도왔습니다.

동녘에서 솟아 오르는 아침 해'발은 기'발을 곱게 물들였고 전야에는 우리 돌격대원들의 씩씩한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리 수복 청년 돌격대》원들은 자기 앞에 맡겨진 자급 비료 반출을 계획한 시일보다 훨씬 앞당겨 훌륭히 완수 하였습니다.

평남 숙천군 련화 농업 협동 조합

통신원 리 제 국



충실성

남양 제염소 뜨락또르 운전수 리 병준 동무에 대한 이야기



4 년간 무사고의 비결

염전의 삼월은 가장 바쁜 시절이다. 전야에서 영농 준비가 일년 농사를 결정하듯이 염전에서도 준비 사업이 그해. 생산을 많이 좌우한다.

그래서 요새 서해 바다'가의 제염소는 불꽃튀는 로력 투쟁으로 들끓고 있다.

밤이 깊어서야 무연한 벌판에서 뜨락또르들이 돌아 왔다. 뜨락또르 운전수들은 하루의 로력 성과를 자랑하면서 집으로 돌아 간다.

운전수들이 돌아가자 사위는 조용해 졌다. 그런데 뜨락또르들이 가지런히 줄세워진 직장 한쪽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다. 때마침 직장을 한바퀴 돌아 오던 민청 위원장 신 문섭 동무는 그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병준 동무요?》

하고 민청 위원장이 묻자 뜨락또르 밑에서는 굵다란 목소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네, 이제 곧 들어 가겠습니다.》

뜨락또르 밑에서 나사를 죄고 있던 병준 동무는 한참만에 기여 나왔다. 민청 위원장은 그의 일'손을 돕다가 경쾌한 발동 소리를 듣고야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병준 동무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에 잠겼다.

…병준 동무가 우리 제염소에 온 후 벌써 4 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는 이 4 년 동안 단 한전의 사고도 없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 왔다. 그가 우리 제염소에 오기 전 순천 농기계 작업소에서도 3 년 동안 무사고로 일했다고 한다.

그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어떤 난관이 있건 자기 맡은 과업을 어김 없이 수행했다. 그는 이렇게 밤 늦게 하루 일이 끝났으나 반드시 뜨락또르의 보수 점검을 다해 놓고 시동까지 해 본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는 일하다 쉬는 짬이 있으면 뜨락또르 밑으로 기여 들어 가서 이것 저것을 살펴 보기도 하고 다른 부속을 검열하거나 뜨락또르를 깨끗이 닦고 있는 것이다.

그는 주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수 점검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월요일은 기관 부문, 화요일에는 조향 장치… 토요일에는 결착 부문, 이렇게 부문별로 순차를 정해 놓고 한주일이면 뜨락또르 전체를 깨끗이 검열해 보는 것이다.

그가 4 년 동안 무사고로 뜨락또르를 운전했다는 것은 그렇듯 자기의 뜨락또르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걷던 민청 위원장 동무의 눈앞에는 며칠 전에 있은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그때도 늦은 밤이였다. 병준 동무의 집앞을 지나가던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방안에서는 빤한 불'빛과 함께 부처간의 다정한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말 미안한 부탁이 하나 있소.》

《무슨 부탁이세요.》

《당신에게 명주 천이 있지 않소? 다음에 내가 사다 줄테니 그걸 나에게 줄 수 없겠소.》

《아이참! 남자가 망칙스레 천은 해서 뭘 해요?》

《다름이 아니라…》

병준이는 차근차근 설복조로 자기의 의도를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말을 듣고 있던 민청 위원장은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

이튿날 이른 새벽에 민청 위원장은 자기 집에 있는 명주 천을 가지고 병준 동무의 집을 찾아 갔으나 그는 벌써 직장으로 가고 없었다. 그가 달음박질쳐 직장에 갔을 때는 한발' 자국 늦었었다.

병준 동무는 깨끗한 명주 천으로 기름을 받고 있었다.

병준이는 언제나 뜨락또르에 치는 기름을 그대로 쓰는 일이 없었다. 만일 기름에 불순물이 섞이여 들어가면 뜨락또르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고장이 난다고 언제나 명주 천에다 아홉번씩이나 받아서 썼다.

그런 덕분에 그는 6 개월이면 교환하게 된다는 브론제르 부속을 4 년 동안이나 쓰고 있다.

명주 천으로 새여 떨어지는 방울방울의 맑은 기름은 밝아 오는 새벽빛에 령롱하였다.…

여기까지 생각해 오던 민청 위원장은 자기 혼자 중얼 거렸다.

《이런 민청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나는 행복하다.》

가끔 동무들이 병준이를 둘러싸고 무사고의 비결이 어데 있는가고 물어 보면 그는 빙글 웃으며

《비결은 무슨 비결이요! 그저 뜨락또르를 아끼고 사랑하면 되지.》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높은 책임성

그 이튿날 아침 직장 벽보판에는 《간밤에 있은 미담》 이라는 표제하에 굵직한 속보가 나붙었다. 지난 밤에 누구인가 뜨락또르에서 기름이 새여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밑에 바게쓰를 받쳐 놓아 기름의 류실을 방지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는 민청 위원장의 머리 속에서는 선뜻 병준 동무가 떠 올랐다.

어제 저녁에 그가 돌아 볼때에는 분명 뜨락또르 밑에 바게쓰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일 늦게 남았던 것이 병준 동무이다. 어두운데서 기름이 방울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자면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는 뜨락또르를 다 정비한 후에도 다른 동무의 뜨락또르를 돌아 본 것이 틀림 없었다. 민청 위원장은 자신이 좋은 일을 한것처럼 가슴이 흐뭇해졌다.

한 번은 김 관두 동무가 증발지에서 일하다가 자기의 뜨락또르를 구멍이에 빠뜨린채 고장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관두 동무는 앓아 누웠다. 뜨락또르 한 대가 움직이지 못해도 소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시기이다. 그러니 날이 밝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병준 동무는 선뜻 작업 도구를 지고 일어섰다. 동무들이 야밤'중에 어떻게 고치겠는가고 만류했으나 그는 그냥 벌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엔 한가닥 걱정이 맴돌았다.

(관두 동무의 뜨락또르는 나의 것과 구조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병준이는 모든 뜨락또르에 정통하지 못한 자신을 꾸짖었다.

그는 불을 켜워 놓고 뜨락또르 밑으로 기여 들어 갔다. 볼트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였다. 삼월달 야밤'중에 땅우에 누워 있자니 몸이 얼어 들었다. 낯서른 기계를 어둠 속에서 다루자니 여간만 힘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끝내 밤'중으로 그것을 다 수리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김 관두 동무를 대신하여 병준 동무는 그 뜨락또르를 몰고 그 날 작업을 훌륭히 보장했다.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어느 일요일 날이였다. 병준이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로동당원이며 천리마 작업 반장인 정 홍모 동무는 휴계실로 들어 서면서 이외의 광경에 깜짝 놀랐다. 여나무 명의 청년들이 제가끔 병준에게 꽃다발을 먼저 주려고 야단법석이였다.

한 청년이 작업 반장을 보자 달려와서 말했다.

《우리들은 모두다 뜨락또르 운전수의 자격증을 방금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드리는 꽃다발이군 그래.》하고 작업반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글세. 제가 뭘했다고 이 야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준이도 벙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 제염소에서는 전반적 기계화 문제가 제기되였는 데 뜨락또르 운전수 문제가 제일 난 문제로 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민청 조직에서는 10 명의 운전수를 양성할 분공을 병준 동무에게 주었던 것이다. 초중을 나오자 뜨락또르 운전수가 된 병준에게는 사실 이것이 힘든 일이였다. 그러나 자신도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이 어려운 과업을 단 6개월만에 훌륭히 수행해 낸 것이다.

《병준 동무, 우리 바람이나 쏘이며 나가볼까?》

작업반장은 병준이와 어깨를 나란이 하고 외룡산으로 올라갔다.

무연한 제염소의 염전'벌이 한 눈에 안겨 온다. 여기서 생산되는 소금, 그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식용으로 쓰는 것은 물론 소금 2 톤 200 키로 그람이면 가성 소다 한 톤이 나온다. 용광로도 소금에서 생산되는 서슬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으며 염안 비료도, 농약도 그리고 유리 생산에 쓰는 탄산 소다도 그 수 많은 것들이 소금에서 생산된다. 그러니 알곡, 직물, 수산, 건설, 제철 그 어느 부문이고 소금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하며 염전'벌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슴은 흐뭇하였다.

《그런데 병준이, 어려운 과업을 하나 재껴야겠네, 우리가 저 염전을 한 번만 더 다져 주면 그만큼 소금이 더 생산되지 않나, 그런데 <크랑크 메달> 하나 때문에 귀중한 뜨락또르가 움직이지 못하는 수가 많거든!》

병준이도 선뜻 대답을 못했다. 왜냐하면 그 메달은 그때까지 수입하여다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만든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왜 자신이 없나?》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벌써 우리들은 <붓싱> <악슈르축>을 만든 경험이 있지 않나, 더구나 로동당 시대의 민청원들에게 못할 일이 어데 있단 말인가,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줄 알아야 하네.》

그 다음 날부터 병준이는 작업반장의 직접 지도를 받으면서 《크랑크 메달》 생산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고속도 회전에 견디여 낼 만한 주석과 동, 그리고 안찌몬의 합금을 만들어야 했는 데 그의 비률도 아직 잘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 경험적으로 이것을 확증해 내야만 하였다. 그들이 몇번이고 만들어 낸 합금에는 거기에 구렬이 가는 것이였다. 혹시 열처리를 잘 못했는가 하고 몇번이고 되풀이 해 봤으나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여덟번째나 실패한 그들은 맥이 풀려 휴계실로 들어 왔는 데 며칠 밤을 꼬박 새운 그들은 인차 잠이 들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직장 당 위원장은 그들의 잠이 깰가 조심히 나와서 아궁이에 가서 불을 지폈다. 싸늘하였던 휴계실이 훈훈해 졌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그들은 잠에서 깨여났다.

《이번 출장 가서 기계 공장 기사장 동무를 만났는 데 안찌몬에는 고속 안찌몬과 저속 안찌몬이 있다더구만…》

그러자 병준이는 무릎을 탁치고 일어 섰다. 원인을 알고 보면 쉬운 것이다. 그들은 1,300 도에서만 용해되는 고속 안찌몬을 썼기 때문에 계속 구렬이 생긴 것이다. 사실 야장'간으로서는 겨우 900 도의 열 밖에 올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저속 안찌몬을 리용하여 훌륭한 합금을 만들었고 0.01 미리라는 세밀성과 싸우면서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내나 《크랑크 메달》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맹 세

제염소에서는 하나의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그것은 제염소의 전반적 기계화와 여섯 개 고지 점령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수상 동지께서 직접 뜨락또르 열 두 대를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 뜨락또르를 몰고 오는 맨 앞장에 병준 동무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병준 동무의 가슴에는 천리마 휘장과 중앙 민청 모범 메달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난 해 계획을 5월 30일까지 230%로 완수하였던 것이다.

뜨락또르 대렬을 마중하는 사람들의 뒤로 천천히 생각에 잠겨 걸어오고 있는 자기네 작업반장을 보는 순간 병준에게는 그가 해준 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자네들도 알겠지만 나는 이 염전에서 근 30 년 간을 일하여 왔네. 일제 때 우리 로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았는지 자네들은 모르지. 지금은 뜨락또르로 하지만 일제 때는 300 키로나되는 돌 로—라를 바'줄로 끌고 그 넓은 염판을 다져야 했다네. 그리고 지금은 양수기로 바다'물을 퍼 올리지만 그때는 수차로 온 종일 퍼 올려야 했다네. 발로 계단 올라 가듯이 말이네.

먹는 것은 어떤 것을 먹었는지 아나? <함바> 집에서는 조밥에 알 반찬이란 것을 주었네. 알 반찬이라는 것은 소금 반찬을 말하는 데 알처럼 생긴 굵직굵직한 소금을 준다하여 이렇게들 말들을 했다네.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가!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계가 다 해 주지 않나. 더우기 로동자들의 로동을 어떻게라도 더 헐하게 해주기 위하여 수상님은 단꺼번에 열 두 대라는 뜨락또르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나! 그러니 여섯 개 고지 점령에서 우리는 더 힘을 내여 생산 과제를 꼭 초과 실행해야 하겠네.》

(그렇다. 우리는 금년도 11만 톤의 소금 생산을 어김 없이 수행하여 여섯 개 고지 우에 승리의 붉은기를 휘날려야 한다. 그리고 나는 금년도 8월까지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에서 나머지 과목을 합격하여 반드시 기수가 되여야 한다. 나라의 전면적 기술 혁명 시대에 사는 청년답게 모든 준비를 가추고 7 개년 계획의 높은 봉우리를 계속 치달아 올라야 한다.)

병준이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결의를 다지며 핸들을 힘 있게 틀어 잡았다. 가없이 넓은 염전'벌에서는 청년들의 씩씩한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본사 기자 하 만춘

전우여! 그대와 함께

류 종 덕



갈마 반도를 에돌아
바다로 나가고 돌아 올때에
호도의 끝 낮은 산머리
흰 돌벼랑을 향하여 서면
언제나 반갑게 나를 맞아 주는구나
웃음 띈 옛 전우의 얼굴이여!

그대는 파도 부서지는 산굽이에 눕지 않고
오늘도 초소를 지켜서있듯 산마루에 올라
높이 높이 손'길을 흔들어 주며
수 많은 배들을 마중하여 보내는구나.

고향을 둔 곳은 서로 달라도
바다'가 마을에서 자라난 우리
싸움의 날에 이 바다를 지키여
원쑤의 검은 배에 포화를 퍼부었고

전투가 물러가면 산마루에 달려 올라
노호하고 뒤끓던 이 바다의
어장을 덮을 고기'배들과
불'빛 밝은 항구의 밤들을 이미 그리였으리

함께 싸워 지켜낸 이 바다
함께 그리던 오늘을
어찌 내 혼자서만 일하며 즐긴다 하랴
사철 바다에서 배를 집 삼고

조국에 귀한 선물 쌓아 보내며
나는 이 포구를 떠나가고 또 돌아 오노라.
그대의 몫까지 두곱으로 일하면서
80만 톤 고지에로 달려오르노라.

내 여기를 떠나 살지 않으리라
내 언제나 그대의 마중에 대답하며
언제나 변함 없는 그대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그대와 함께 있으리라…

바다로 나가고 돌아 올 때에
언제나 나를 맞아 반겨 주는 전우여!
오늘도 산마루에 올라 초소를 지켜서 있듯
그대는 영원히 이 바다를 지켜 서 있으라
우리는 그대와 함께
언제나 이 바다의 주인이여라.

—1962. 2.8절을 맞으며—



지상상봉

자력갱생-이는 공산주의자의 혁명정신이다

박 영 순

최근 나는 잡지 《청년 생활》 편집부를 통하여 황해 제철소 민청원들로부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유격대원들이 그렇게 간고한 환경속에서 온갖 애로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며 싸워 이겼는가를 알려 달라는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를 받은 나의 눈 앞에는 15 여 성상의 간고한 투쟁의 나날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물론 나는 내 자신이 남보다 특별히 더 잘 싸운것도 없는것 만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중요하게는 그시기에 우리 동지들이, 또한 근거지 내 혁명적 군중들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곤난을 어떻게 뚫고 나갔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김 일성 원수의 령도하에 조직 지도된 항일 유격 투쟁은 장구한 시일에 걸쳐 진행된 실로 간고한 투쟁이였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의 빨찌산은 자기 나라 땅에서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정규군과의 긴밀한 련계하에 무기와 식량, 피복을 공급 받으면서 싸웠다.

그러나 우리의 항일 유격대는 이국 땅에서 모든 것을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간고한 환경에서 1~2 년도 아니고 15 여 성상이나 장구한 시일에 걸쳐 싸웠다. 이것은 항일 유격대가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과 자력갱생의 정신을 깊이 체득하고 그를 자기의 전투쟁 행정에서 실 생활에 충분히 발양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던 시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장이였다.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고 일제 침략자들을 쳐 없애려는 적개심이 높아도 맨주먹으로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무장한 원쑤들을 소탕할 수는 없었다.

무장한 원쑤들을 소멸하려면 무장을 들어야만 했다. 그렇다고 누가 무장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어디서 생기겠거니 하고 앉아서 기다릴 수도 없었다.

오직 자기의 힘으로 원쑤들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거나 혹은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 직접 무장을 만드는 길외에 다른 길은 없었다.

김 일성 원수의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우리는 그 때적의 무기를 탈취하여 자기를 무장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우리는 처음에 호미와 낫, 창, 혹은 《고추 폭탄》으로 적의 무기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는 형용하기 힘든 곤난도 많았으나 유격대는 모든 난관을 용감히 뚫고 나가며 원쑤들의 총을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였다.

적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두만강을 건너 일제 경찰을 처단하고 무기를 탈취한 동지, 창을 가지고 백주에 고개'마루에서 일본 헌병을 재껴치우고 권총과 군도를 빼앗은 동지, 단신 적 경찰서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한 이야기, 수'적으로 몇곱이나 되는 적과 격투하여 총을 빼앗은 사실, 놈들의 경찰을 업고 강을 건느다 물에 처박고 무기를 빼앗은 부녀자들에 대한 이야기, 원쑤들이 휴식하는 곳에서 장난질하는 척하다가 무기를 빼앗은 아동단원들… 실로 무장 획득을 위한 투쟁은 유격대에서만 아니라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어졌으며 점차 대규모로 확대되였다. 우리는 그때 적들을 《무기 수송대》라고까지 불렀다. 이와 같이 유격대는 무장 획득을 위한 피어린 전투를 진행하는 한편 집체적인 지혜와 창발성을 발양하여 자체로 무기를 제작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지금도 나는 우리들이 심성디 수리 바위'굴속에서 연길 폭탄을 만들던 때 일이 생각난다. 맨주먹으로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보통 상식으로는 무기를 만들자면 기술과 경험, 그리고 자재가 있어야만 되는것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야장'간에서 쓰던 풀무와 메, 집게 밖에 없었다.

또 누구도 총이나 폭탄을 만드는 것을 본적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었다.

오직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과 높은 혁명적 창발성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처음에 남포약을 구해다가 큰 소리만 내는 《소리 폭탄》을 만들었으며 다음엔 고추 가루를 넣어 《고추 폭탄》을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엔 지혜를 합쳐 돌쪼각을 넣은 폭탄을 만들었으며 나중엔 그렇게도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한 연길 폭탄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것도 한두가지가 아니라 3 호탄, 2 호탄, 특호탄, 련발탄등 다섯종류의 각종 폭탄을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도 많았다. 폭탄을 만드는 바위'굴이 놈들에게 습격 당하여 포위 속에 있은때도 있었고 특히는 화약이나 철편등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 어떤 곤난도 혁명을 위해 몸을 바쳐 나선 우리의 혁명 정신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우리들은 담배'대, 호박 덩굴, 변소간과 부엌의 흙등으로 화약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깨여진 가마, 보습, 달구지테 등을 뽑아 철편 문제도 해결되였다.

실로 자기가 맡은 혁명 과업은 자기가 실행하고야 만다는 자력 갱생의 높은 혁명 정신이 있을 때 해결못할 일이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항일 무장 투쟁의 전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식량과, 피복, 의약품, 기타 필요한 물자들을 구하는 일도 적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자체로 해결 하여야만하였다.

전투 기재와 후방 물자를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조건하에서도 강대한 적과의 싸움은 어려운 일인 데 모든 것을 적에게서 빼앗아 그것으로 자체의 수요를 충당하면서 투쟁 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였고 필승불패의 신념과 불타는 조국애를 간직한 유격대원들은 그 모진 풍파와 가시덤불'길을 용감히 극복해 나가면서 원쑤들을 때려 눕히고 식량과 피복, 기타 군수 물자 등을 로획하였다. 뿐만 아니라 큰 성시 같은 것을 점령했을 때는 적 군수 창고의 식량과 피복을 의례히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하였다.

식량과 피복 기타 물자들이 모자라 가장 곤난을 겪던 시기의 하나는 유격 근거지—해방지구를 창설하고 투쟁하던 때였다.

유격대의 력량이 날로 강화되자 극도로 당황한 적들은 유격 근거지를 없애치우려고 미쳐날뛰였다. 적들은 수천 명의 병력을 풀어 매일 같이 《토벌》을 감행하며 유격 근거지에 대한 봉쇄 대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유격대원들과 근거지 내 혁명 군중들은 련일 밀려오는 적 《토벌대》 놈들을 소탕하는 한편 자체로 모든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모든 생활을 오직 자체의 힘으로 꾸려 나갈때만이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 유격대원들과 근거지내 인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그곳에 인민 혁명 정부를 수립하고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자체로 학교와 병원을 건설하고 무기 수리소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달'밤을 리용해 김을 매고 가을을 하였다.

또한 그렇게 간고한 환경에서도 《3. 1 월간》을 비롯하여 《서광》, 《반일 보》, 《투쟁》, 《적기》, 《국제 뉴스》 등 각종 출판물들과 격문, 삐라, 포스타를 발행하여 대원들과 광범한 군

종관을 혁명 사상으로 교양하였으며 아동들도 학교에서 훌륭히 공부시킬 수 있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유격대 앞에 부닥친 난관은 실로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유격대원들은 중중첩첩한 그 모든 애로와 난관을 오직 자기의 힘과 지혜로 뚫고 나가면서 투쟁하였다.

일제 침략자들은 마지막 시기에 빨찌산들에 대하여 《너희들의 힘은 바다에 뜬 좁쌀 알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어떻게 대일본 제국을 반대하여 싸우겠는가?》라고 떠버린 삐라를 산포하면서 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하여 20 여 만의 《관동군》을 풀었으나 놈들의 어떠한 발악도 유격대원들의 투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적들의 발악이 심하면 심할 수록 우리들의 투지는 더욱 굳어졌던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항일 유격대원들로 하여금 그처럼 간고한 환경에서도 중첩한 난관을 인내성 있게 뚫고 나가며 모든 생활을 자체로 꾸려나갈 수 있게 하였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유격대원들이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 령도 핵심에 의하여 교양되고 지도된 데 있으며 그것은 또한 조선 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 사람의 힘으로 하며 모든 생활을 자체의 지혜와 노력과 투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정신, 즉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되고 집체적인 지혜와 힘을 모아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필요한 것은 적과의 가렬한 싸움을 통하여 찾아낸 데 있다.

만약 혁명을 하는 사람이 남에게 의지해 살려고 하거나 남의 힘을 빌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는 아무런 발전도 할 수 없으며 커다란 곤난에 부닥 치게 되기만 하면 필연코 주저 앉게 되고 만다.



이러한 것은 공산주의자의 품성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오직 자기 힘을 강하게 꾸릴 때만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

자력 갱생의 정신—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고상한 혁명가적 기질이며 품성이다.

친애하는 민청원 동지들!

당신들은 오늘 무한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

동지들도 아다 싶이 오늘 우리 인민은 일찌기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전례 없는 혁명적 대고조기에 살고 있다.

지난날 가난하고 락후한 식민지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되였으며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고 사람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는 행복한 지상 락원으로 되였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다.

참으로 조선 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지혜이며 행복이며 태양이다.

력사적인 제 4 차 당 대회가 제시한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전망은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게 하며 우리 인민의 생활을 더욱 행복하고 유족하게 할것을 약속하고 있다.

더우기 금년도에 우리가 점령해야 할 여섯 개 고지의 의의는 크다.

모두다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6 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나서자. 그리하여 금년도의 인민 경제 계획을 기한전에 초과 완수하고 우리의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일층 공고히 하며 우리 조국 강토에서 미제 승냥이들을 몰아내고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할 통일의 그날을 하루 속히 앞당기자!

생물체 내에서 경락의 실태를 발견한 인민상 계관인이며 생물학 박사인

김 봉한 교수와의 담화

기자—경락의 실태를 발견하여 현대 생물학 및 의학 발전에서 위대한 공헌을 한 박사 동지에게 우리는 《청년 생활》 독자들과 함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박사—고맙습니다. 저의 과학적 발견을 축하해 준 《청년 생활》 독자들에게 인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우선 경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박사—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인체의 유기체를 체액이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세기 말엽에 신경설에 의하여 유기체를 관리 조절한다는 것이 판명되였습니다.

이렇게되여 사람들이 움직이고 느끼고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은 신경 반사적인 조절에 의한 것으로 공인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유기체 조절 문제는 완벽한 과학적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사실 체계화되고 현대화 되였다는 서양 의학의 기초 리론은 아직도 예방 및 치료 행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락 리론을 핵심으로하는 동의학에서는 현대 서양 의학이 감당하지 못하는 불치병들도 많은 것을 척척 해결 해 갔거든요.

례를 들어 말하면 현대 서양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앉은뱅이도 동의학에서는 침에 의하여 일어서게하고 말못하는 벙어리도 말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서 의학계를 막론하고 침구 치료의 기본 리론인 경락 리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연구에 달라붙어 골몰하였으나 문제를 풀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어떤 학자들은 경락 리론은 환상적인 가설에 지나지 않다고 비난해 나섰고 어떤 학자들은 황당무계하게도 경락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며 침구술이란 오랜 경험의 축적에서 나오는 하나의 술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속단해 버리는 데 이르기까지 되였습니다.

기실은 동의학에서도 벌써 수백년 전부터 경락이란 말이 전해오고 있으나 경락의 본체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역할을 노는가 하는 확고한 과학적 및 물질적 근거가 밝혀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 제도와 과학 발전이 그것을 해명해 줄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선조들이 창조하였으며 훌륭한 치료, 예방 경험을 축적하여 온 동의학의 핵심인 경락은 오늘 로동당 시대에 와서 그 실태가 발견되였으며 우리의 눈으로도 실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과 인간 유기체 내에 그의 전일적 련관을 보장하는 조절 계통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 지여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현대 생물학과 의학은 신경 계통과 혈관 계통만이 생물체 내에서 전일적인 련관을 보장하는 조절 계통으로 인정되여 왔으며 이외의 다른 계통이 존재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락 실태의 발견은 현대 생물학과 의학이 아직 예방 및 치료 행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며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 향상에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락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락은 크게 경혈과 경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혈은 동물과 인간 유기체의 표피하 및 다른 조직들에 존재합니다. 말랑말랑 하면서도 모양은 대체 계란과 같이 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크기와 모양은 매개 경혈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맥은 관 모양으로 생긴 관상 구조물의 여러개의 묶음으로 되고 있답니다. 이 관상 구조물을 짜르고 보면 그 테두리는 둥근 원형 또는 란원형으로 되고 있으며 그 직경은 20~50 미크론 안팎입니다 그 벽은 아주 얇은 막으로 되여 있고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은 색이 없는 투명체 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관상 구조물들은 자기를 결합시켜주는 조직에 싸이여 있고 경맥자체도 결합 조직이 둘러 싸고 있습니다.

이 경맥도 경혈과 같이 말랑말랑하나 그 속은 아주 충실한 그런 감촉을 줍니다. 그런데 경맥의 관상 구조물들이 경맥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경혈에 잇닿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혈에는 여러개의 관상 구조물이 련계되게 됩니다.

기자—그러면 경혈과 경맥은 어떤 기능을 놀게 됩니까?

박사—우선 경혈은 전기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연—류산 아연 불분극 전도자를 피부에 밀착시키고 유도하는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침 또는 온도로써 경혈에 자극을 주어 그의 전기 생물학적 활성에 변화를 일으키면 그것은 곧 동물과 인체의 내장 기능에 반영되여 변화를 일으키게합니다. 반대로 내장의 기능에 변화가 일어 날때에는 경혈도 전기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장과 경혈은 호상 유기적으로 련계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경맥으로 련계되여 있는 경혈들은 그 중 하나의 경혈에 변화가 일어나도 모두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유기적인 련계를 보장하는 기능을 경맥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맥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무엇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만일 경맥을 절단 한다면 경혈과 내장, 경혈과 경혈간의 련계가 차단 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 조상들이 벌써 수백년 전에 제시한 경혈의 분포가 오늘의 것과 대체로 일치하다는 점입니다.

기자—동의학을 연구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에서 느낀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사—나는 근 20 년 동안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1956년 조선 로동당 제 3 차 대회의 문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며 동의학을 계승 발전시킬 데 대한 중요성을 가슴에 아로 새겼습니다.

정말 제 3 차 당대회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는 나에게 과학의 요새를 점령할 대로를 밝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남긴 고귀한 유산인 동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그의 후예들인 우리 학자들의 숭고한 의무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동의학을 연구하게된 동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단이 연구 과정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모든 과학 일반이 다 그러하듯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였습니다.

더구나 우리들의 연구 과제는 수백년 동안 학자들이 연구하면서도 아직 보지도 못했고 또 있다고 확인도 되지 않는 경락의 실태를 찾아 내여야 하는 것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앞길을 라침판과 같이 가리켜 준 것은 당과 수상님이 항상 가리키신 과학 연구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것이 였습니다.

기실은 우리가 처음 동의학 연구에 착수했을 때는 이 주체의 뜻을 잘 리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학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들도 동의학 리론을 현대 서양 의학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 소화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 미개척지인 경락의 실태를 발견하는 데 이런 방법으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제때에 우리가 잘못 나가고 있는 길을 바로 잡아 주었으며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의학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의 물질적 기반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서 선진적인 조선 의학을 건설할 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꾸준하고 인내성 있는 불요불굴의 투지와 불같은 정열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고비에 부닥칠때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항상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고 그 혁명 정신을 배웠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행한 전기 실험만 해도 1,000 여번이나 되며 실험에 쓴 토끼만 해도 1,000 마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는 수많은 실패가 가로 놓이군 하였지요. 그러나 불요불굴의 투지와 불같은 정열은 마침내 성공의 열매를 맺게 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과 수상 동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만이 그리고 집단의 지혜가 합쳐질 때 위대한 과학의 성과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은 과학 연구 사업에 일상적 배려와 지도를 주었으며 저에게는 경락 연구실 까지 차려 주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1960년 12월 내가 《경혈에서의 전기적 변화》라는 첫 론문을 제출하였을 때였습니다.

이 때 어떤 학자들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다른 학자들은 신경 학설에 대치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만 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때 《당은 동무를 지지하오! 경락 연구 사업을 끝까지 수행합시다.》 하고 나를 무한히 고무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한번은 당 분조장 동무가 연구 현장에 와서 《수상 동지 께서 우리의 연구 사업을 주시하고 계십니다.》하고 전해 주었을 때 나는 그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로운 당을 위하여 천백배의 힘을 기울이자! 기어이 당과 수상님의 기대에 보답하자.》

나는 수십번 수백번 자기의 결의와 맹세를 되뇌이고 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락의 실태를 찾는 인체 실험을 자신의 몸으로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발견한 연구사와 조수들은 나를 꾸짖다 싶히 하면서 서로들 자기몸을 내미는 것이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집단들이 발휘한 창조적 지혜가 합치지 않았던들 그리고 우리 나라 많은 학자들의 방조가 없었던들 오늘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자—끝으로 《청년 생활》 독자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없겠습니까?

박사 나는 무엇보다도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로동당 시대에 사는 영예를 소리 높이 자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한 제도하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영예를 언제나 잊지 말고 가슴 깊이 간직하고 빛내일 것을 부탁합니다.

청년 동무들은 나라의 전면적 기술 혁명 시대에 인생의 값 높고 고귀한 청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 앞에는 수 많은 과학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며 과학과 기술을 나라의 혁명 발전,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할 데 대한 우리 당의 과학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 해결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 분야에서 우리 나라 선조들이 남겨 놓은 경험들과 업적들을 전면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체계화 하여 발전시켜야할 숭고한 과업이 어깨 우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 동무들은 전면적 기술 혁신의 앞장에서서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는 당과 수상 동지의 충직한 전사가 될것을 부탁합니다.

대동강 천리'길



김 동 전

(전호에서 계속)

몇날 몇 밤인가, 굽이치고 소용돌고 늠늠히 흐르는 대동강, 그 강 우에 춘보 아바이와 영식, 그리고 나까지 셋이 탄 떼'목은 어느덧 승호리에 이르렀다.

아찔하게 높은 굴뚝들은 하얀 구름을 뭉게뭉게 토하고 나란이 줄지어 선 소성로들은 웡웡 소리치며 끓고, 하얀 가루를 뒤집어 쓴 꼬리 긴 화물 렬차들이 동으로 서로 오가는 것이 보인다. 여기가 바로 승호리 쎄멘트 공장인 것이다.

그대로 석회석인 높은 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그지 없이 흐뭇하다. 전국의 건설장과 공사장 그 어디를 안가는 데 없는 승호리 쎄멘트, 《마르까》가 높아 소문이 자자한 승호리 쎄멘트, 그 승호리 쎄멘트가 여기서 쏟아진다. 조국 건설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 건재 기지 승호리.

승호리를 지나니 대동강이 갑자기 바다처럼 넓어진다. 상원에서 흘러 온 남강이 대동강에 합쳐지는 것이다. 왼쪽이 환히 트이며 둔덕 우에 검스레한 벌판이 펼쳐지는 데 이것이 동천'벌이다.

《이 벌판에 수상 동지께서 현지 지도하신 리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였을 때 《그럼 리 신자 동무가 있겠습니다!》하고 영식 동무가 인차 묻는 것이였다. 민청원인 그는 붉은 선동원 리신자 동무를 잘 알고 있었다.

혁신의 땅 동천'벌은 벼 농사 잘되는 미림'벌에 잇닿아 있다.

여기를 에돌면 고방산 사동 탄전에 다달은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질 좋은 무연탄층이 묻혀 있는 여기, 지금 이 탄전의 삼신 탄광에서는 1,500만 톤의 석탄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가 줄기 차게 벌어지고 있다.

여기 사동'벌에 산처럼 쌓인 버력 더미들은 기억하리라. 왜놈들의 발악이 극심하던 그 시절을, 왜놈의 해군 연료창이란 간판에 목메여 울던 곳, 그러나 지금 이곳은 인민들의 즐거운 노래가 흐르는 락원으로 되였다.

물'줄기는 굽이 돌아 대성산 기슭을 스친다. 대성산, 그 밑에 지추'돌만 남은 고구려 왕궁의 성지가 보인다. 그 예'날 한낮에도 사슴이 울던 곳이라더니 지금은 이슬 먹는 사슴, 하남의 황범, 사막의 락타들이 산다. 남북양의 동물들 즐거이 울고 남북극의 화초 만발한 대성산은 인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되였다.

수도의 중심부가 가까워 질 수록 우리의 가슴은 더욱 높이 뛰였다. 온 나라 사람들의 붉은 심정과 흠모의 정이 쏠리는 붉은 수도 평양,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영웅 도시로 격찬을 받는 우리 조국의 수도 평양, 평양은 우리 조국의 심장, 우리 혁명의 중심지이다. 여기 경애하는 수령이 계시고 여기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있는 곳.

여기서 우리의 혁명이 구상되고 여기서 우리 당의 정치 로선과 정책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 조국의 흥성과 번영이 나래친다.

평양은 3천만 인민의 마음의 고향, 마음의 불빛이며 우리 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찬란한 중심지이다.

드디여 물'결은 굽이쳐 흘러 모란봉을 감돌아 든다. 릉라도의 실버들은 춤추며 물'결을 희롱하고 이끼 푸른 청류벽의 유착한 모습은 맑고 푸른 물'결 우에 수려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청류벽 높이 송림을 헤치고 솟아 있는 부벽루며 을밀대,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 어느 것 하나가 감회 깊은 지난 날의 력사를 말해 주지 않으련만 그 중에서도 저기 모란봉 기슭에 창공 높이 나래치는 청동의 룡마가 더우기 우리들의 시선을 멈추게 한다. 어느 한 시인의 시구절이 생각난다.

영웅 조선의 기상을 담뿍 담은
만수대 언덕에 높이 솟은 천리마…
너는 당의 의지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인민들의 승리의 상징
……

우리가 탄 떼'목이 하류로 흘러 내릴 수록 수도의 위용은 더욱 눈부시다.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지는 수도의 모습을 그 어찌 낯익다고만 하랴. 우리는 황홀한 눈으로 붉은 수도의 아름답고 웅대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은 모르리라. 평양의 쓰리고 아픈 과거의 사연을…왜정 36 년, 평양엔 게딱지 같은 가게'방만 다닥다닥 붙어 장사'군들로 복닥이였다. 인력거, 리야까, 마차들이 소리소리 지르며 복닥이던 도시, 게다가 도시의 중심부엔 왜놈들만 살았고 조선 사람들은 토성랑과 보통'벌의 빈민 굴에서 살아야만 했다.

미제 원쑤와 싸우던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의 수도 평양은 야수들의 폭격으로 만신창이 되였었다. 문'자 그대로 페허의 도시였던 평양, 연기 속에 날이 새고 연기 속에 날이 지는 때가 많았다. 그 때 원쑤들은 그야 말로 재'더미로 된 평양이 다시 일어서지 못할것 이라고 떠버리였다.

그러나 평양은 원수들이야 어찌 하였던 간에 소리 치며 일떠서기 시작하였다. 불과 5~6년 간에 평양은 현대적인 대도시로 건설되였다. 그 예'날 어느 시절의 평양과도 비길 수 없는 그러한 웅대하고 문화적인 대도시로 건설되였다. 재'더미를 헤치고 불사조마냥 일떠선 거리, 어데를 보나 눈에 꽉 차는 현대식 대건물들, 행복이 물'결치는 거리이다.

강의 우안에 경상'골 청년 공원이 바라보인다. 모란 폭포에서 칠색 령롱한 무지개가 뻗어 올랐고 꽃바구니에 실려 별나라 구경을 오르는 어린이들의 즐거운 노래'소리도 들린다.

행복에 겨운 어린이들의 노래'소리는 거기만이 아니다. 장대'재 높은 언덕에서 쏟아지는 귀여운 것들의 웃음 폭포…

《아니 저게 무슨 집입니까?》

《그것이 아동 궁전입니다.》

《네?!…》

춘보 아바이는 말 없이 덤덤히 바라보는 것이였다. 문'자 그대로 궁전인 그 집을 바라보며 로인은 아마도 아득히 멀어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뒤적이는 모양이리라!

일찌기 부모를 여읜 춘보 아바이네 3형제, 맏이가 열 살인 년년생, 밥투정이 한창일 그들은 머슴으로 팔려 헤여진 채 글 몰라 편지 한 장 못 하고 매운 몸인지라 한 번 오가지도 못 한 채 30 년 세월에 묻쳐 영영 못 만나고 말았다고 한다. 어찌 이런 이야기가 춘보 아바이에게만 있는 이야기겠는가! 우리의 할아버지들, 아버지들이 다 겪은 이야기 …

잊지 말자! 청년들이여, 우리들의 할아버지'적에, 우리들의 아버지'적에 있은 쓰라린 이야기,

그 때는 이 대동강도 구슬피 흘렀건만 오늘은 춤 추며 흐르누나! 인민 주권 좋은 세상이라 강도 춤추며 흐르누나!

하얀 나비같은 뽀트들, 유람선들의 우에 청춘 남녀들의 노래'소리 흥겨웁다.

반월도의 백사장엔 벌거숭이들 뛰노는 데 수례문의 여울 소리는 가락처럼 들려 온다.

땅에서 보면 고래같은 기와집이요, 강 상에서 보면 두둥실 뜬 기선같은 옥류관, 흰 무지개 아홉 개가 길길이 맞잡고 선 옥류교, 차마 그 곁을 그 대로 지나갈 수 없다.

왜놈들이 7 년을 걸려 놓았다는 대동교의 3 배나 되는 옥류교를 단 한해 동안에 놓았다는 수도 건설자들의 위훈에 놀라서였다.



천년을 하루같이 흘러 흐르는 대동강, 대동강의 력사는 하도 많아 어느 것부터 외우면 좋을지 모르는 데 련광정에 이르니 이러한 이야기 하나가 생각 나서 나는 리조 중엽 임진 왜란 때의 이야기 하나를 잠간 하였다.

왜적의 괴수 소서 행장이 평양성 대동강의 동쪽 강안까지 육박하여 성하의 항복을 강요하였을 때 그 당시의 지배 계층들과 그의 심복들은 강토와 백성을 버리고 멀리 의주로 피난의 길을 떠났으나 백성들은 굴함 없이 왜적을 무찔러 싸워 대동강 푸른 물을 피로 물들였다.

이 대동강의 력사 속에는 그 당시 왜장을 격살한 계 월향의 꽃다운 이름도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 옛'이야기를 말하 듯 란리에는 전투 지휘처로 쓰고 평시에는 휴식 터로 쓰이던 련광정과 대동문이 지금도 거연히 서 있다.

우리는 련광정 기슭을 에돌며 련광정 붉은 기둥에 붙은 옛시인이 쓰다가 말은 시를 읽었다.

《장성 일면 용용수
대야 동두 점점산》

옛풍경이 감회 깊다. 그러나 긴 성 기슭을 물'결이 용용히 굽이친다는 첫 줄은 오늘도 맞았으되 동평양의 넓은 벌엔 산만 점점히 솟았다는 둘째 줄은 오늘 풍경에는 맞지 않는다. 오늘 동평양은 커다란 주택 지구를 이루고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어루만지며 즐비하게 솟아 있는 것이다.

높이 솟은 로동자 아빠트의 행복한 창문들, 장대'재 우에 아찔하게 솟은 아동 궁전의 웅자, 먼 이국의 벗들이 쉬고 가는 호텔, 안팎에 립립이 일떠 선 고층 건물들의 하얀 바람벽들, 그 중에 군데군데 하늘을 휘젓는 기중기들…

강변에 남향으로 앉은 고층 주택들, 그 중 한 집에는 새집들이를 하는구나. 의롱이 번듯하고 라지오, 재봉기 다 갖추고 서가에 그득그득 책을 쌓은 저 집의 주인은 무슨 학자나 되는지…?

아버지가 뭘 하시는 분이냐고 소리 쳐 물었더니 다섯 살 잡이 순박한 것이 소리 쳐 대답한다.

《울 아버진 로동자애요.》

그렇구나 로동자, 보통 로동자의 집은 풍성하기 이를 데 없구나, 향상된 인민들의 생활 모습을 예서도 한 눈에 볼수 있으니 정말 좋구나.

청기와 영롱하고 방금 날아 날 학처럼 추녀를 쫙 벌린 대극장이 바라보인다.

《바로 저기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소집되였습니다. 바로 저기서 수령께서 우리 당이 거둔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시고 위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자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는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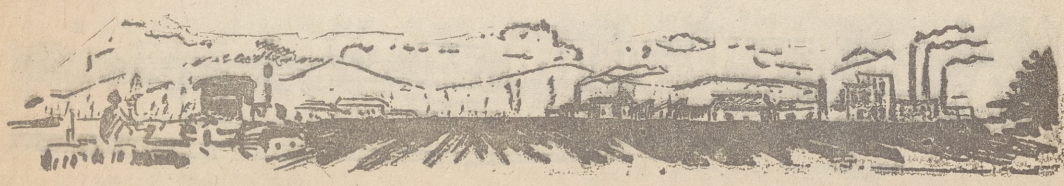
대극장의 웅대한 건물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그것은 평양이 찬란한 과학 문화 예술의 중심으로도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기 모란봉 후면에 있는 김 일성 종합 대학의 웅대한 청사만 보아도 그렇다. 앞으로 22 층으로 구름'길에 솟아 있을 드높은 건물, 우리 나라 배움의 최고 전당, 지금 그 곳 정문으로는 이나라 수 많은 로동자 농민의 자제들이 드나들고 있구나. 그리고 보니 거리로 활개 치며 다니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대학, 전문학생인 듯 싶다.

누구나가 다 배울 수 있고 일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시대, 삼수라 두메 화전민의 딸들도 수도에 와서 대학을 다니니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냐!

거리 복판에 과학원의 대리석 기둥도 보인다. 바로 저 문으로 일찌기 돌에서 비날론을 발견한 리 박사도 드나들었고 3000 여 회의 실험을 통하여 철콕쓰를 만들어 낸 젊은 기사도 무수히 드나들리라! 백발이 성성한 고고학자며 방금 대학을 마친 젊은 조수들도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리라!

바로 이 곳 수도에서 얼마 전에는 박사이며 교수이며 인민상 계관인인 김 봉한 박사가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받들고 우리 나라의 동 의학을 깊이 연구하여 생물체내에서의 경락의 실태를 발견함으로써 20 세기의 과학사에서 탁월한 기여를 하였다.



이는 로동당 시대의 또 하나의 커다란 자랑이며 조선 인민의 민족적 자랑인 것이다.

문득 대극장 안에서 음악 소리 들려 온다. 청아하게 흐르며 만리 창공에 펴지는 민족 악기의 높낮은 선률—그렇다. 우리의 민족 문화 예술은 찬란히 꽃피고 그 이름 세계에 《황금의 예술》로 떨쳤다.

극장들의 게시판에 붙은 연극《붉은 선동원》, 영화 《분계선 마을에서》의 광고들도 다채롭구나!

《로동 신문》이며 《민주 청년》등 온갖 신문, 잡지, 서적들을 만재한 트럭과 렬차도 달리는 것이 보인다.

갑자기 동평양의 푸른 보뚝에서 처녀들의 고운 노래 소리 들린다. 전국의 직물 생산의 삼분의 일을 담당하는 평양 방직 공장의 직포공들이다. 지금 저기 방직 공장에서는 수령의 현지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직포공들이 2억 5천만 메터의 직물 고지 점령을 위하여 부산스레 일'손을 놀리리라!

서쪽 제사 공장 쪽에서도 처녀들의 노래 곱게들려 오는데 그 중 누구 하나는 길 확실 동무가 아닌지?… 아니면 그의 다정한 동무들이리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일하는 인간 개조자들이 거닐던 보뚝과 강 기슭… 볼 수록 유정하고 볼 수록 처녀들의 아름답고 붉은 마음씨가 보인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동평양 기슭의 방직공장, 곡산 공장, 고무 공장, 평천리 지대의 제사 공장, 전기 공장, 정밀 기계 공장, 그밖에도 무수한 공장들… 그야말로 평양은 우리 나라 공업 중심지의 하나이기도 하다.

평천리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온다. 엑스까와똘들이 탕탕거리며 땅을 파고 불도젤들이 흙을 밀어 내고 자동차들이 쉴 새없이 드나든다.

또한 청년 돌격대원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아니 저기 무슨 일판이 벌어졌소?》

춘보 아바이가 둥근 눈을 한다.

《네 거기가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장이랍니다.》

이렇게 내가 대답하자

《네?! 그럼 수상 동지께서 직접 대지를 잡아 주신…?》

하고 영식 동무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수상 동지께서 직접 잡아 주신 대지랍니다. 인제 저 공사는 7 개년 계획 기간에 완공되고 그 중 일부는 금년 중에 벌써 조업을 개시하거던요. 앞으로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여기에서 40 만 키로왓트의 전력이 생산되여 민주 수도의 공장들과 시민들의 가정에 전기를 보내 주고 또 랭각관에서 더워진 온수와 증기를 집집에 보내 주어 그 온수로써 방을 덥이고 그 증기로써 밥을 짓는답니다.》

이 건설장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간단히 말하자 두 사람은 황홀한 눈매로 전기화된 조국의 미래를 내다 보는 것이였다.

평양의 중심 거리가 살아질 물목에서 우리는 100 년 전의 싸울터를 더듬으며 흐른다.

종교의 가면을 쓰고 미제 침략자들이 대동강 깊이 기여 들어 백성들에게 략탈과 학살을 감행하던 곳, 미제 무장선 《제네랄 샤만호》가 격침된 곳이 바로 여기이다.

성경책을 설교하려 왔다던 놈들은 거리에다 대포를 퍼부었다. 물건을 팔려 왔다던 놈들은 백성들의 재물과 보화를 략탈하여 갔다.

이에 격분한 백성들은 일떠 서서 원쑤들과 싸웠다. 암초에 걸려 뛰지를 못하고 있는 해적 선을 수많은 쪽배에 불을 달아 띄워 수장해 버린 샤만호 사건의 이야기가 이 대동강에 있다.

그것은 벌써 100년 전, 오늘도 조국의 남녘 땅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제는 우리의 100년 전 원쑤이다. ~그러나 미제는 우리와의 첫 싸움부터 우리에게서 죽음을 당하였다.

원쑤를 물리친 대동강, 억세인 흐름이여! 장하다. 원쑤를 수장시킨 너의 기개, 너의 용맹은!

이러한 자랑을 안고 흐르는 강, 력사의 강, 어머니 대동강은 조국의 심장 민주 수도 평양을 감돈다.

아름다운 평양의 한 복판을 노래를 싣고 행복을 싣고 인민의 강 대동강은 흘러흘러 간다. 그러나 아직 대동강 천리'길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호에 계속)

36 번째 골



축구 선수 연 승철 동무의 이름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국외의 많은 선수와 체육 애호가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연 승철 동무는 수 많은 국내 국제 경기들에서 항상 붉은 체육 전사의 고상한 풍모, 조선 청년의 슬기로운 기개를 유감 없이 발휘하여 그때마다 만인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그는 지금까지 60여회의 국제 경기에 참가하여 대담한 돌입력과 다양한 기술로써 상대편 방어수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무려 설흔 여섯 개의 귀중한 꼴을 넣음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다.

과거 로동자였던 그가 당의 붉은 체육 전사답게 중첩되는 난관을 뚫고 공훈 체육인이 되기까지의 그의 이야기를 다음에 소개한다.

백절 불굴의 기백으로

이윽고 렬차가 역 구내에 서서히 들어섰다. 작별의 시각이 다가 왔다. 들어 오고 나가는 사람들의 번잡한 흐름속에서 김 책 제철소의 로동자들이 정기어린 눈'동자의 끌끌한 한 청년을 끌어 안고 헤여지기 아쉬운듯 번갈아 얼굴을 부빈다.

《잘 가게. 부디 우리를 잊지 말게.》

《어디에 가거나 로동자의 솜씨를 보이라구.》

그들은 군중 속에 쌓여 련신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있는 한 청년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어제까지 로동자였던 청년이 이제 자기의 동료들의 곁을 떠나 우리 나라 1 급 선수단 선수로 뽑혀 평양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악수, 포옹, 뜨거운 부탁—이 모든 것도 순간, 기관차의 그육중한 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잘 있게 동무들!》

돌아가는 차륜의 굉음이 청년의 마지막 이 웨침을 동료들에게 전해준 채 미구에 모든 것을 억눌러 버렸다. 연 승철은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동료들과 헤여졌다.

이렇게 헤여진 것은 1955년이였다.

연 승철 동무가 1급 선수단 선수로 뽑히우게 된 것은 그 전 해에 있은 전국 체육 대회 때 김 책 제철소의 축구 좌익 공격수로 출전하여 훌륭한 기술을 보여 준 탓이였다.

그러나 그의 기술은 2급 선수단에서 평가 받을 만한 것이였지 결코 1급 선수단 선수들과 같이 우수한 기술을 가진 그러한 정도는 아니였다. 그렇기 때문에 1급 선수단에서의 그의 생활은 몹씨 힘들었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보지 못한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생소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첫날부터 맹 훈련에 들어 붙었다. 아침 해 뜨기 전에 훈련장에 나가면 어두워야 숙소에 돌아왔다.

그의 기묘한 머리 받기와 비상한 돌입력은 항상 상대편 방어수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나 이것은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니였고 부족점이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것을 곧 완성하여야만 하였다. 원래 그는 한다고만 하면 끝끝내 해내고야마는 성미여서 무슨 일이건 해 제끼군 하였다.

훈련은 하루같이 간고하였다.

힘이 진하여 경기장에 쓰러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였다. 그는 이때마다 로동 계급의 출신답게 누구보다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 국제 수준을 따라잡으라고 한 당의 교시를 가슴에 새겼던 것이다. 특히 힘에 겨운 훈련에 부닥칠 때 마다 제철소 동무들의 얼굴이 삼삼히 안겨 오군 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불면 불휴의 훈련의 나날을 보냈다. 훈련 부담은 하루 하루 높아 갔다. 그만큼 훈련 시간도 늘어 갔다. 과감한 돌입력과 속도 배양을 위해 단거리 질주 훈련을 하루에 수 십번씩 반복하였다. 실로 그것은 단거리 선수들도 놀라운 정도였다.

특히 머리 받기 훈련을 할 때는 경기시에 어떠한 정황에서도 정확하게 하고저 담'벽에 뽈을 차 보내고 그것을 떨구지 않고 계속 받는 훈련을 거듭 하였다.

그에게는 모든 곳이 훈련장으로 보이였다. 식당으로 가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동작과 자세를 납납이 그려 보고 실지 동작을 취해 보군 하였다.

목적이 뚜렷하고 그를 위해 정력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간고한 훈련의 첫 열매

끊임 없이 훈련한 첫 열매는 1955년 7월 와르샤와에서 있은 국제 경기에서 드디여 나타났다.

씨리야팀과 대전할 때였다. 우리 측 우익 공격수가 상대방 문전 10 메터 근방에로 뽈을 차넘기였다. 이때 연 승철 선수와 함께 체격이 장대한 상대방 중앙 방어수가 그 뽈을 받아 내기 위하여 꼭 같이 높이 뛰여 올랐다. 누가 먼저 받는가에 따라 뽈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였다. 좌익 공격수 연 승철 선수는 결코 양보할 수 없었다. 그는 상대방이 머리질하려는 찰나 날쌔게 머리를 휘둘러 꼴문 왼쪽 구석으로 받아 넣었다. 총알같이 날아간 그 뽈이 그물에 걸리자 수만 관중이 일제히 환성을 올리였다.

연 승철 선수는 씨리아 선수단과의 경기에서 단독으로 네 꼴을 넣었었다. 그 중 두 꼴은 앞으로 뻗어 나가면서 머리 받기로, 다른 두 꼴은 비상한 속도로 깊이 돌입하여 차 넣었던 것이다.

그는 이태리팀과의 경기에서도 민속한 돌입으로 상대편을 혼란시키고 두 꼴이나 넣었다.

이 대회에서 발휘한 그의 불굴의 투지와 다양한 기술은 우리 나라의 일부 선수들 속에 남아 있던 구라파 선수들의 체질의 강대성과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짓부시였다.

이것은 당이 하라는 대로 완강한 훈련과 전면적 육체 단련을 한다면 어떤 상대편도 타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그에게 안겨 주었다.

연승철 선수는 매 국제 경기에서 항상 침착하면서도 조성된 경기 정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뽈을 기묘하게 처리함으로써 자기 팀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그는 1956년 공화국 체육 명수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달성한 성과에 조금도 만족함이 없이 기술 련마에 더욱 힘차게 전진하였다. 날과 더불어 국내에서 축적된 경험은 국제 경기에 더욱 익숙케 하였다.

1958년 7월 체코슬로바키야 《붉은 별》 팀과의 경기는 아주 간고하게 진행되였다. 2:1로 전반전에서 패한 우리 선수들은 초조와 불안에 쌓여 있었다. 허나 당시 주장이였던 연 승철 동무는 선수들의 저락된 사기를 고무 추동하고 후반전에 들어 갔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선수들은 다시 한점을 회복하였다. 이제 어느 편이 한 꼴을 넣는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시각이 닥쳐 왔다. 이때 중앙선 부근에서 연 승철 선수에게로 뽈이 날아 왔다. 비가 내리여 진흙 투성이가 된 연 승철 선수의 전신에는 소름이 오싹 끼치였다. 치료 받고 있던 다리의 아픔이 쑤셔났다. 그 때 상대방 중앙 방어수가 쏜살같이 달려 들어 왔다. 연 승철 선수는 뽈을 양보 할 수 없었다. 아픈 바른 다리를 상대방 앞으로 짚고 몸을 뒤로 홱 돌리면서 왼발로 뽈을 끌어 감쪽같이 옆으로 빼내였다. 그러자 그의 앞에는 상대방 방어수가 또 가로 막아 서 있었다. 그 이상 바른 다리는 더 쓸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어찌 주저할 수 있으랴! 그는 무릎을 굽히면서 그 쪽으로 나갈 듯이 동작을 취했다. 그러자 상대방도 그 쪽으로 몸이 쏠리였다. 순간 왼쪽에 공간이 생기였다. 이 기회를 놓지지 않고 연 승철 선수는 바른 쪽으로 넘어지면서 왼발로 힘껏 뽈을 차넣었다.

《꼴인!》 수만 군중의 환희와 경탄의 함성이 터지는 순간 후반전을 끝내는 호각 소리가 울리였다.

그는 많은 국제 경기들에서 이와 같이 하여 상대방의 선수들과 관중들의 심장을 틀어 잡았다.

1956년 중국, 월남 팀과의 경기 때에도 이러한 불굴의 투지, 예민한 판단력, 비상한 속도로 멋 있는 꼴을 넣어 《쾌보(빠르다는 뜻)》로 불리웠다.

크릴리야 쏘베또브팀과의 대전에서는 상대방의 문지기가 연 승철 선수의 능란한 기만 동작에 유인되여 두 번 씩이나 문을 비우고 뛰여 나와 두 알이나 꼴을 먹었다.

2:1로 승리한 모쓰크바 《쓰빠르따크》 팀과의 경기에서 그는 《위력한 매》로 활약하여 수만 관중들을 경탄케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은 그의 공격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리였으며 때로는 자기 팀의 전술 체계까지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당이 하라는대로 할때…

연 승철 선수는 경기에서만 이렇게 모범적 역할을 노는 것이 아니였다.

그는 항상 동지에 대한 우애심을 가지고 있으며 성과와 공로는 집단과 동지의 것으로, 동지의 잘못은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는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고

었다. 이러한 고상한 품성은 곧 집단의 힘으로 되였으며 선수단 성원들에게 말 없는 교양으로 되였다.

뿐만 아니라 연 승철 선수는 언제나 당과 조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선수들을 교양하였고 또 스스로 그러한 모범을 보여 주었다.

작년 중국 북경에서 8. 1 팀과의 경기때였다. 우리 팀에게 한 점을 빼앗긴 8. 1 팀 선수들은 실점을 만회하려고 집요하고 치렬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상대방의 공세에 눌리지 않고 반공격을 들이댔다. 이때 연 승철 선수는 상대방 문전에서 방어수와 마주쳐 타박상을 입었다. 승철 선수는 움직이려 했으나 못박힌듯 꼼짝 할 수 없었다.

이때 뽈을 몰고 오던 김 기선 선수는 뽈을 련락하려 했으나 가까운 데는 운신조차 못하는 승철 선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주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그는 그가 반드시 뽈을 처리하리라는 생각이 들자 그에게 뽈을 넘겨 주었다. 바로 이 때 승철 선수는 조국과 인민 앞에 다진 맹세가 떠 올랐다.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 오리다.》

그는 결연히 일어서 다친 다리를 끌면서 달려 들어 갔다. 그리하여 보기 좋게 꼴을 넣었다. 그의 불굴의 정신에 감동된 것은 비단 선수 뿐이 아니였다. 장내를 떠나갈 듯이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승철 선수는 매 경기마다에서 이러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팀 성원들을 추동하였다.

체육 명수인 그는 1961년에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먼저 공훈 체육인의 영예를 지니였다.

연 승철 선수가 이렇게 명성을 떨치게된 데는 아무런 비결도 없다. 그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에서 하라는 대로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가 속한 팀의 중요한 전적을 말함으로써 연 승철 선수의 빛나는 성과를 더욱 보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의 팀은 씨리야 팀과 9:0, 세일론 팀과 5:1, 체코슬로바키야《붉은 별》팀과 3:2, 중국 8. 1 팀과 2:1, 이라크 팀과 8:3, 쏘련 모쓰크바 쓰빠르따크 팀과 2:1로 각각 승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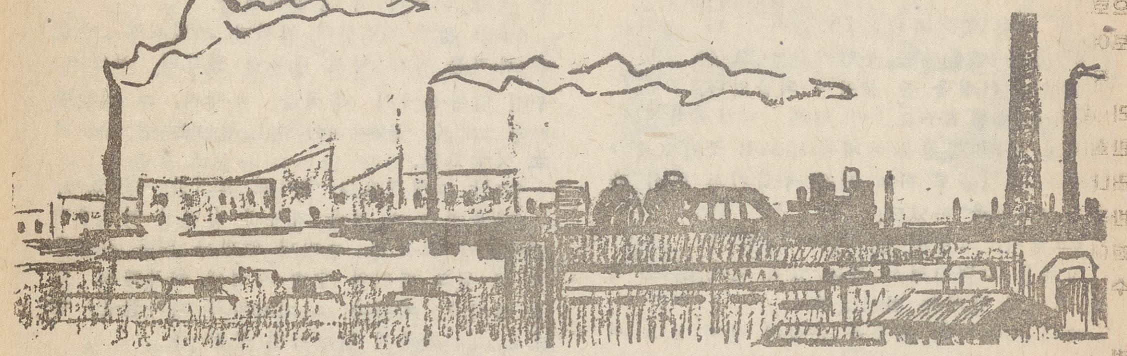
오늘도 훈련장을 종횡무진하게 달리는 재능 있는 축구 선수 연 승철 동무의 얼굴에는 중첩되는 난관을 뚫고 어려운 고비를 이겨낸 승리자의 긍지가 빛나고 있다.

강 철구



파학 환상 소설

무쇠없는 공장



김 동섭

어느듯 반달도 서산 마루에 기우렀다. 바다에서 불어 오는 써원한 밤'바람이 구석마다 스며든다.

은빛 가로등이 나란이 지켜 선 거리로 두 젊은이가 걸어 가고 있었다.

팔에다가 두어 권의 책을 끼고 말 없이 뚜벅뚜벅 걸어 가는 현이는 무엇인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하였다.

그 옆에선 책보를 낀 숙이가 뒤 떨어지지 않으려고 빠른 걸음으로 따라 가고 있었다.

숙이의 키는 현이의 어깨에 다을락 말락 하였지만 길에 비친 그림자에 가서는 한 두어자 가량이나 작아 보였다.

두 젊은이가 공장 대학에 다니기 시작한지도 어느듯 두 해가 지났다.

아마도 서로 집이 가까웠던 탓이겠지만 별로 약속한 일이 없어도 날마다 그들은 공부를 마치고 이 밤'길의 길'동무가 되였다.

《아이 참 그 선생님이 어찌나 까다롭게 캐묻는지 땀을 흠뻑 흘렸어요.》

숙이가 좀 천천히 가자는 듯이 말을 건넜다. 처녀의 목소리가 퍽 상냥한걸 보아 오늘 시험에서 혼은 났어도 5 점은 맞은 모양이다.

《글쎄 원추형 소재의 가공법에 대해서 자꾸만 따지시지 않겠어요. 기대공 동무들 같으면 문제도 아니겠는 데 나처럼 실험실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야 잘 알 수가 있어야죠, 아마 그 선생님이 내가 현장에 자주 나가 보지 않는 걸 아시고 그렇게 혼 내운 모양이예요.》

숙이는 단숨에 이렇게 말하였다.

《글쎄…》

그런데도 현이는 아주 무관심하게 대답하는 것이였다.

《그래 반장 동무는 보충 질문에 안 걸렸댔어요?》

숙이는 현이의 심상찮은 기색을 살피면서 또 말하였다.

《아니.》

이번에도 대답은 짤막했다.

《뭐 혼자만 시험 잘 쳤다구 그렇게 뻐기지 마세요.》

숙이는 눈을 귀엽게 흘기면서 말하였다. 현이는 크게 숨을 내 쉬였다.

두 젊은이는 한 동안 말 없이 걸었다. 사택 마을로 넘어 가는 고개 턱에 이르러 길은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앞서 걷던 현이가 문득 멋더니 되돌아 섰다.

《숙이 동무! 저기를 보오.》 현이는 굵직한 팔을 들어 그들이 방금 떠나 온 공장 구역을 가리켰다.

어슴푸레한 별'빛 아래로 저 멀리 용광로가 장수처럼 버티고 서 있었고 거기로부터 발밑까지 드넓은 벌판이 숫한 공장 건물과 굴뚝들로 꽉 덮혀 있어 마치도 공장의 숲 같은 느낌을 주었다.

《거기 뭐가 있어요?》 숙이는 심각한 표정을 한 현이의 얼굴과 그 쪽을 번갈아 바라다 보면서 의아해서 물었다.

밤은 깊고 누리는 깊이 잠들었건만 공장들

은 대낮처럼 들끓고 있었다.

쇠'물이 끓어 번지는 불꽃과 번쩍이는 용접 불꽃은 여기저기 켜져 있는 전등들을 무색하게 하리만큼 밤 하늘을 훤히 비추군 하였다.

《자 이게 모두가 무얼하는 곳이요?》

현이는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서 묻는 것이였다.

《뭘 하는 곳이라니요?》

《무엇을 만들자는 곳인가 말이요?》

현이는 어성을 좀 높이며 되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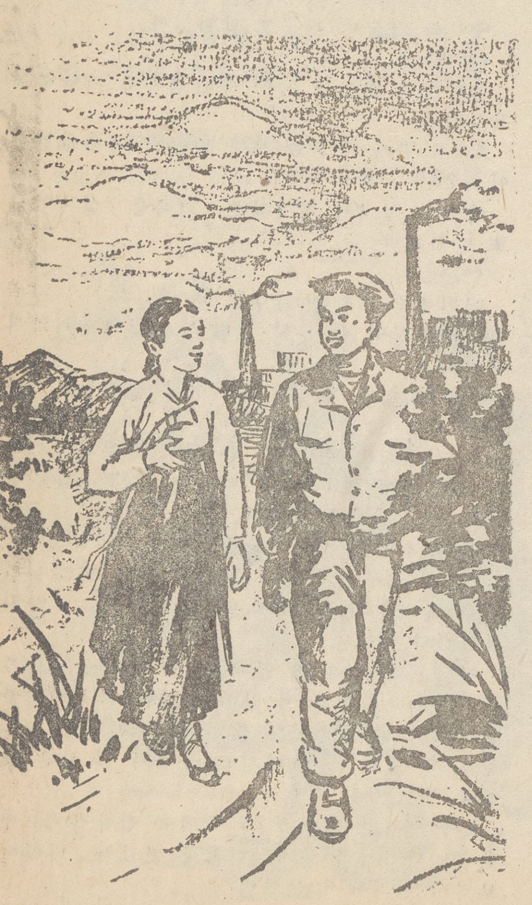
《저긴 제철소구요. 이 편은 제강소이지요. 그리고 우리 공장은 기계를 만드는 곳이겠죠.》 숙이는 싱겁기도 하고 한편 우습기도 해서 간신히 이 말을 하였다.

《그렇지, 그렇구 말구!》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던 현이는 손'벽을 치면서 웨치는 것이였다.

숙이는 현이의 거동을 유심히 살펴 보고 서 있었다.

《숙이 동무, 내 말 좀 듣소.》



잠시 후에 좀 진정한 현이는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시험을 치면서 나는 이상한 생각에 빠져 들어 가게 되였소.》 여기까지 말하고서 현이는 잠시 말을 끊었다.

《무슨 생각이예요?》

숙이도 현이가 심상찮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퍽 궁금해졌다.

《나는 광석으로부터 기계가 조립되여 나올 때 까지를 차례 차례 더듬어 생각해 보았소. 우선 철광산에서 광석을 캐야지, 그 것들을 선광장에서 골라 내야지.》 현이는 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야 그렇지요.》 숙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는 그 것을 기차에 실어서 여기까지 날라와야 되겠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원료 채취와 수송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요. 게다가 그 기관차와 화차들을 만드는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무려…》

현이는 세이기도 힘들다는 듯이 말하였다.

《그래서요.》 숙이는 가만히 대답했다.

《그 다음엔 용광로에서 쇠'물을 녹이지, 그런데 용광로를 움직이자면 우선 탄광에서 석탄을 캐서 보내와야 되고 그것을 해탄로에 넣어서 콕쓰를 마들어야 되고 보이라에 불을 때서 증기를 얻어 송풍기로 돌려야 되고, 로 벽을 쌓기 위해서 내화물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건 그렇다 치구요.》 숙이는 다 아는 이야기라는 듯이 가로 막았다. 하긴 그대로 놔 두면 밤새도록 손'가락을 꼽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덤비지 마오. 이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셈이요.》

숙이는 다소곳이 듣고 있었다.

《그것을 가져다가 제강소에선 강철을 만들어 내지, 압연 직장에선 여러가지 강재들을 뽑기 위해 압연을 하지.》 현이는 말을 끊고 숨을 갈아 쉬였다.

바다에서 불어 오는 가벼운 바람이 한차례 그들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 공장에선 일이 시작된단 말이지. 그 것들을 가져다가 또다시 녹이거나 달구어서 주물도 하고 단조도 해서 소재를 만들어 내고, 그것들을 공작 기계들에서 깎아 내고 뚫어내고 곱게 다듬어 내겠다.

이렇게 해야만 기계의 부속품 하나가 생겨난단 말이지. 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며 얼마나 힘들고 많은 품이 거기에 드는가 말이요. 응》

현이는 새삼스러히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허허 웃었다.

숙이는 시치미를 떼고

《그걸 이제야 알았나요?》 하고 자기는 놀라지 않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옳소. 정말이지 오늘 밤에야 깊이 깨달았소. 지금까지 벌써 이 고개를 5년째 넘나 들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생산 공정이 복잡하다는 것은 생각 조차 한 일이 없었단 말이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바로 그렇게 되여 있는걸…》 숙이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면서 말하였다.

《다른 방법은 없을가? 더욱 간단한 방법이!》 몹시 흥분한 현이의 웨침 소리가 찌렁 찌렁 밤 하늘로 울려 퍼졌다.

《하긴 요전에 신문을 보니깐 립철에서 계속 강철을 뽑아 내는 련속 제강법도 성공 했다던 것 같던데요.》

숙이는 문득 생각난듯이 말했다.

《그리고…》 현이는 상기된 얼굴로 계속 캐물었다.

《또 선진 국가 학자들도 광석에서 직접 강재를 뽑아 내는 방법을 연구중이라나 봐요.》 숙이는 언제인가 들은 바가 있다는 듯이 보태였다.

《겨우 그 뿐이요?》 현이는 숨을 크게 내쉬였다. 크지 않은 눈은 무겁게 떠 있었고 넓직한 어깨는 조각 처럼 굳어 보였다.

《아니요. 그쯤은 귀에도 들어 오지 않소. 더 대담한 방법을 찾고 싶소.》 현이는 침착하게 말하였다.

숙이는 앞장 서서 말 없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뒤에 선 현이가 뚜벅뚜벅 따라 걷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고개 터에서 감돌고 어깨가 이슬에 젖어 들기 시작 하였다.

멀리서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련'이어 들려왔다.

이상한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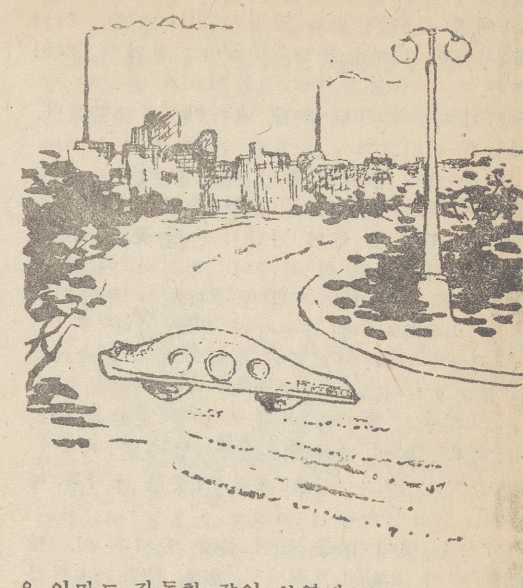
그들이 고개 마루 터을 넘어 지름길로 잡아들려는 순간이였다.

현이는 저편 큰 길을 따라서 쏜살 같이 굴러 오는 무지개 덩어리 같은 것을 발견하고 문득 그 자리에 멈추어섰다.

빨간 빛, 초록 빛, 파랑 빛, 노랑 빛, 각가지 고운 색갈이 한데 엉킨 듯한 그 물체는 패 빨리 다가 오고 있었다.

《저게 무얼가?》 현이는 입속 말로 중얼 거렸다.

거침 없이 언덕 길을 기여 올라 오는 그것



은 아마도 자동차 같아 보였다.

과연 그들이 있는 곳으로 부터 한 이백 메터 되는 곳까지 접근 하였을때 비범한 자동차의 형태가 뚜렷이 나타 났다.

땅에 납작 붙을듯이 얇고 몸매가 류선형으로 생긴 그 자동차는 보기에도 날씬했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차체가 온통 엷은 하늘색을 띄고 있는듯 해 보였지만 유리처럼 투명하다는 것이였다.

그런데 그 투명한 차체 속에 울긋불긋한 각가지 물건들이 보석처럼 들어차 있는 것이였다.

게다가 차체의 여기저기에 달린 조명등이 그것들을 더한층 영롱하게 비추어 마치도 이슬 방울에 무지개가 비껴 있는 듯하였다.

카텡까지 쳐 놓은 창문을 통해 서너 사람이 안락 의자에 기대여 있듯이 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현이는 옆에 끼고 있던 책이 땅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숙이도 넋을 잃고 보고 있었다.

별 드문 새벽 빛이 감도는 바다'가의 길 섶에서 만난 꿈 자동차는 정말 꿈에도 그려 보지 못하리 만큼 아름답고 인상적인 것이였다.

소리도 없이 언덕'길을 달아 오른 그 자동차는 입을 딱 벌린 채로 서 있는 두 사람을 약 삼십 메터 사이두고 마치도 광선이 스쳐 지나가는 듯이 획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이였다.

그 순간이였다. 차가 문득 소리 없이 몇며

너 옆문들이 벌떡 열렸다. 그러나 보통 자동차 처럼 문이 밖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차체에 사람이 드나들만한 구멍이 벌어진 것이였다.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넷이였다.

그들 중의 두어 사람이 전지를 켜들더니 길옆의 둔덕을 유심히 살펴 보는 것이였다. 길 둔덕 아래엔 한 두어 아람이나 될 듯한 도랑이 있었고 아래로는 백 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잠시 후에 그들 네 사람은 무엇인가 수군거리더니 자동차의 네 귀퉁이에 각각 섰다.

《어영차!》하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고 들려오더니 그 꽃차가 번쩍 우로 쳐들리웠다.

네 사람은 자동차를 들고 길섶 도랑을 건너서 백사장으로 내려 가는 것이였다.

《음?!》 현이는 신음 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였다.

숙이는 현이의 등 뒤에 몸을 숨기고 이 광경을 내다 보았다. 또다시 껄껄 웃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벌컥 열렸고 네 사람은 그 속으로 사라졌다.

그 다음엔 또 소리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한 그 자동차는 백사장 한복판으로 쏜살 같이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저런!》 숙이가 깜짝 놀라 소리치는 그 순간 자동차는 창파를 쩍 가르며 거침 없이 바다로 뛰여 들어 가는 것이였다.

영롱한 불'빛들이 한참동안 파도 우에서 두둥실 거리는 듯 하더니 잠시 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상한 영화의 한 장면을 구경한 듯한 기분으로 이 광경을 바라다 보고 있었다.

《동무도 분명히 보았소?》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현이는 눈을 비비면서 물었다.

《보기는 보았는 데 암만해두 생시라군 믿어지지 않아요.》

숙이도 그 비범한 자동차에 탄복했다는 듯이 대답하는 것이였다.

《이제 그 승용차가 우리의 착각이 아니고 정말 자동차라면 대체 어떻게 된 자동차이며 그 속에 탄 사람은 누구일가?》 현이는 눈을 지긋이 감으면서 자신에게 묻는 듯이 말하였다.

《참말 이상해요, 네 사람이서 자동차를 버쩍 쳐들기두 하구요.》

《정말 그래, 그 무거운 자동차를…》

현이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깊은 회상에 잠기는 것이였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

푸른 물'결우에 불'빛이 찬연하리라!

—소형 발전소 건설장에서—

잘 있었느냐? 문앙 저수지여!
우리 또다시 너에게로 왔다.
우등'불 피워 놓고 혁명가 부르며
우리는 저수지를 건설 했었다.

문앙 저수지여! 우리가 다시 왔다.
로동당의 참된 전사들인 우리,
발전소 건설에 앞장서라는
당의 부름 받들고,
우리는 다시 너에게로 달려왔다.

여기에 우리는 건설하리라!
네개의 자그마한 발전소를!
너의 푸른 물'결의 도움으로
여기에 찬연한 불'빛을 일쿠리라!

너의 푸른 물'결은 오랜 나날
값 없이 흘러 나리기만 했다.
가뭄에 터지는 논판,
말라드는 벼 포기는
애타게 너의 물'결을 기다렸건만…

그러나 우리는 너의 물'줄기를 돌려
농민들의 소원 풀게 하였고,
지금은 다시 너의 물'결로
전기를 일쿨려고 여기 우리가 왔다.

우리는 다시 기적을 떨치리라!
칼바람은 불고 땅은 얼었어도
우리의 가슴 속엔 불'길이 치솟거늘
우리 무엇인들 못해내랴!

모내기철, 너의 푸른 물'줄기
논'배미 마다에 흘러 들때까지
우리는 발전소를 건설하리라!
그러면 푸른 물'결 우 에 불'빛이 찬연하리라.

함남 리원군
김 면 희

눈보라가 누리를 온통 감추어 버릴 듯이 휘몰아대던 어느날, 포탄은 간단 없이 산 기슭을 누비고 있었다.

사단으로 가는 전투 명령을 싣고 가는 지휘차는 눈보라를 하늘로 올려 보낼 지경으로 회오리 바람을 일쿠면서 달려가고 있었다.

맨 앞에는 련락 군관과 운전수가 타고 그 뒤에는 따발이를 멘 두 명의 호위병이 타고 있었다.

사방은 온통 하얗건만 이따금 길 주변에서 터지는 포탄들이 뱀 아가리 벌리 듯이 불 혀를 날름대군 하였다.

오른 손으로 총 가목을 굳게 틀어쥔 현이의 량볼엔 아직도 애티가 나 보였다.

갑자기 십여 메터 앞에서 눈섭이 탈듯한 불'길이 솟았다. 채 겯잡을 사이도 없이 그리로 접근한 지휘차는 심한 충격을 받고 위로 뛰여 오르더니 털석 그 자리에 멎었다.

운전수는 비호 같이 뛰여 나려 차 밑으로 기여 들어 갔다.

《어떻게 되였소?》 채 몸을 가눌 사이도 없이 껑충 뛰여 내린 련락 군관은 물었다.

《군관 동지! 스프링이……》 차 밑에서 올라오는 대답이였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달라 붙어 포탄 구멍이에 빠진 차를 밀어 내기 시작하였다. 눈보라는 눈을 뜰수 없도록 세차게 치고 구멍이를 샅샅이 핥아내고 있었다. 얼음판은 발을 옮길 수 없도록 미끄러웠고 강파로왔다.

그들은 어깨를 차 밑에 바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차를 밀어 올렸다.

차는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

포격은 더욱 심해지고 파편 소리가 바로 귀'전을 스친다.…

《음…》

현이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어깨에 힘을 주었다.

(그래 자동차는 그리 가벼운 것은 아니다. 만일 그때 저런 놀라운 자동차가 있었더라면! 그런데…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리 쉽사리 자동차를 들 수가 있었을가?) 이렇게 생각하자 현이는 자기 눈이 더욱 의심 스러워졌다.

《암만해두 이상한 일이요.》 현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옆으로 흔들면서 말하였다.

그들은 그 이상한 자동차가 사라진 그 편만을 물끄럼히 바라다 보면서 신비로운 꿈 속에 잠긴 듯이 서 있기만 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위생지식 피부를 어떻게 보호할것인가

사람의 피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 한다.

첫째로, 외부의 여러가지 해독적 영향으로부터 생체를 보호해 준다.

둘째로, 체온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세째로, 땀을 분비하는 작용을 한다.

네째로, 차겁고 더운 것, 아픈 것 등을 감각하는 지각 작용을 한다.

다섯째로는 흡수 작용을 한다. 례하면 피부 병에 사용되는 일련의 약제들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 된다.

여섯째로, 호흡 작용을 하는데 이는 폐 호흡의 일부를 대신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피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부스럼, 고름딱지, 무좀, 급성 및 만성 습진, 옴을 비롯한 각종 피부병에 걸리게 되며 건강에도 해를 입게된다. 그러면 피부를 어떻게 단련하며 보호 할 것인가?

첫째: 비누로써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머리는 남자는 1 주일에 1 회, 녀자는 1~2 주일에 1 회 정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주일에 1~2 회 정도 목욕을 하되 비누로써 빨아야 한다. 자주 빨면 탈모 현상 (머리가 빠지는 현상) 이 일어 나기에 유해롭다.

둘째: 내의는 1 주일에 1 회 이상 세탁하며 양말이나 발싸개는 1 주일에 3 회 이상 세탁하는 것이 좋다.

세째: 피부를 단련하기 위하여 피부 마찰과 일광욕, 공기욕, 해수욕 등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마찰은 랭수 마찰과 건포 마찰이 있는데 여름철에만 하지 말고 겨울에도 계속 실시 하는 것이 좋다. 일광욕은 5 분 정도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가 시키는 것이 좋으며 머리에 흰 모자나 흰 수건을 쓰고 광선의 직접 조사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일광욕을 한 후는 30 분~1 시간 정도 안정하여야 하며 샤와나 목욕으로써 깨끗이 피부를 씻는 것이 좋다. 또한 공기욕은 피부의 혈액 순환을 완성케 하는 바 10~5 분 정도로부터 시작하여 매일 5 분씩 연장하여 최고 2 시간 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피부를 단련시키고 위생적으로 보호하면 피부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건전한 체력을 소유할 수 있다.

평양 의학 대학 내'과 림상 강좌
김 화 수

청년 오락실

현 상 문 제

철수는 어느 날 자기네 작업반의 랭상 모판을 책임지고 만들 과업을 맡게 되였다.

철수는 우선 민청원들과 함께 랭상 모판 울바자를 든든히 세우기로하였다. 울바자는 불과 수일 동안에 세워졌다.

철수는 이 울바자를 한 바퀴 돌면서 작업의 질 여부를 검열해 보기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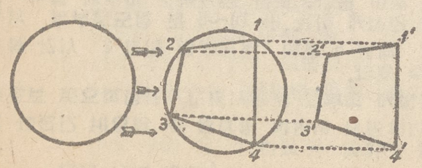
그런데 철수는 울바자와 정확히 1 메터 떨어져서 한 바퀴 돌았다. 철수는 울바자의 전체 길이보다 몇 메터나 더 돌았겠는가?

랭상 모판의 울바자는 직각 4 각형으로 되여 있는 데 길이는 100 메터이고 넓이는 50 메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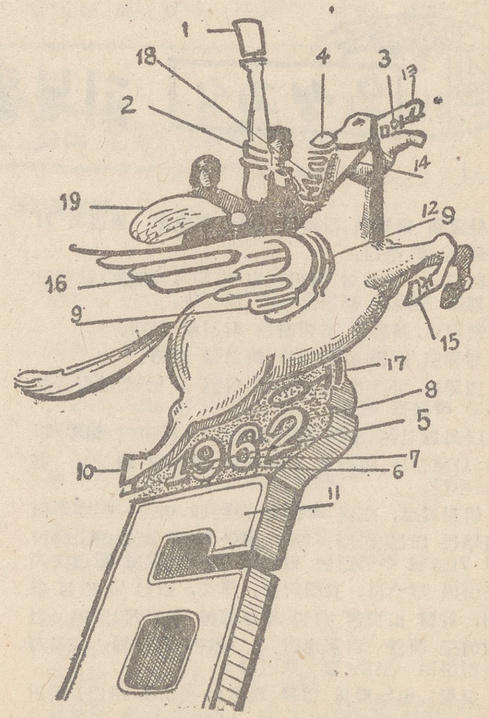
☆ 1 호 현상 문제 해답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파문은 원형일 것인가, 물의 흐름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것은 이 원형의 파문 상의 각 점을 활살로 표시한 방향 (그림 2의 왼쪽)에로 향하게 할것이며, 모든 점들은 같은 속도로 평행되는 직선 방향에 따라 즉 같은 거리에 이동될 것이다. 그런데 《평행 이동》은 파문의 모양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사실 이처럼 이동한 결과 점 1 (그림 1)은 점 1'에 이동될 것이며 2는 점 2'에 이동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각형 1, 2, 3, 4, 는 그와 같은 다각형 1', 2', 3', 4', 로 바뀔 것이다. 이 다각형들이 같다는 것은 형성된 평행 사변형 122'1', 233'2', 344'3'등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원주 상에 4 개의 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점을 취하여도 우리들은 역시 동일한 다각형들을 얻을 것이다. 요컨대 무한히 많은 점 즉 원주를 취한 다면 우리들은 평행 이동을 거친 뒤에도 그와 같은 원주를 얻을 것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물의 이동 운동은 파문의 모양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흐르고 있는 물에서도 여전히 원형인 것이다. 그들 사이의 차이라면 그것은 오직 늪 표면에서의 원은 이동되지 않으나 (가령 그들이 자기의 고정된 중심으로부터 퍼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강 표면에서의 원은 강물의 류속에 따라 그 중심과 함께 운동한다는데 불과하다.



☆ 글'자 찾기 해답



모든 힘을 1962년도 6 개 고지 점령에로!

인민상을 수여받은 연극들



1. 《붉은 선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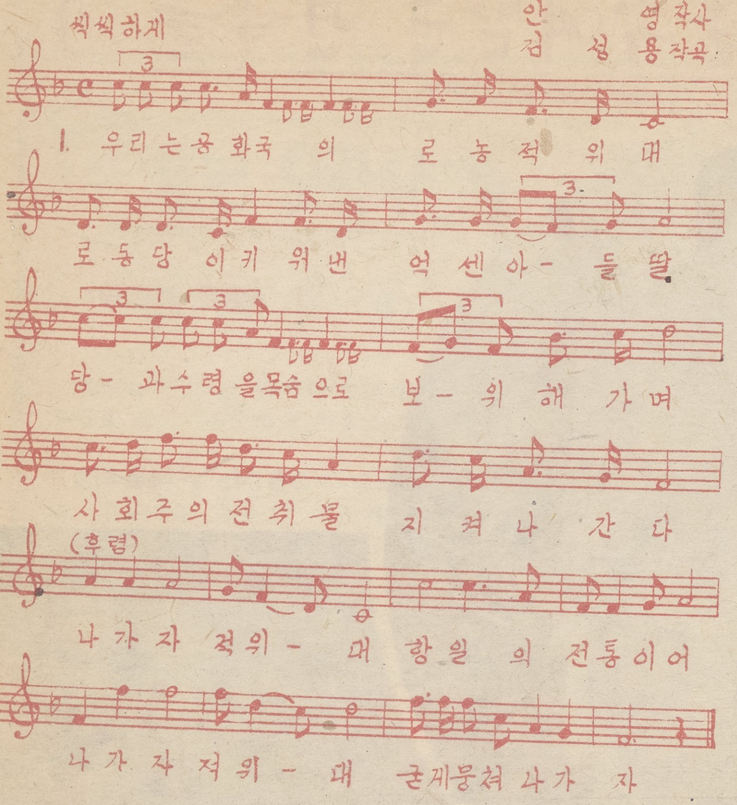




2, 3. 《태양의 딸》

로농 적위대 행진곡

안 영 작사
김 성 용 작곡



2. 우리는 영예로운 조국 보위자
김 일성 원수의 가르침 따라
언제나 백절불굴 불사조 같이
사회주의 전취물 지켜 나간다
(후렴)

3. 정치상학 군사훈련 모두다 의
로동당에 몸바친 인민의 충복
언제나 원쑤에겐 경각성 높이
사회주의 전취물 지켜 나간다
(후렴)

